

이슈페이퍼 2020-09

[www.gie.re.kr](http://www.gie.re.kr)

# 등교수업 한 달, 학교는 무엇이 달라졌나?

백병부  
정재엽



경기도교육연구원  
GYEONGGI INSTITUTE OF EDUCATION



# 등교수업 한 달, 학교는 무엇이 달라졌나?

연구책임자 :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공동연구자 : 정재엽 경기도교육연구원

## CONTENTS

---

요약 \_ 03

I. 코로나19와 함께 한 2020학년도 1학기 \_ 05

II. 설문조사 분석 결과 \_ 09

III. FGI 분석 결과 \_ 30

IV. 요약과 제언 \_ 46

참고문헌 \_ 50

부록 \_ 51



## 요약

- 2020학년도 1학기는 코로나19와 함께 한 비정상적 시기였음. 학교 구성원들은 3월 2일에 개학을 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비정상적 경험을 했음. 여기에 더해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은 학교 구성원을 둘러싼 비정상적 상황을 가중시켰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책 당국과 학교 구성원들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비정상적 이야기할 수 있는 폐해를 최소화했음. 동시에 지금의 경험은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학교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음.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와 이 연구에서 조직한 FGI를 통해서 병행등교 이후 진행된 수업과 학교의 일상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과 평가를 정리한 것임.
-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2020학년도 1학기는 정책 당국과 학교 구성원 모두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시기로 정리할 수 있음. 정책 당국은 온라인 개학과 병행 등교를 위한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교원들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작동시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음.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발휘하여 온라인 학습을 했으며 까다로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학교생활에 임했음. 가정과 지역사회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음. K-Edu의 저력은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한 것임.
- 동시에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초래된 여러 한계 또한 목도할 수 있었음. 그 중의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강의식 수업과 상대적 서열을 정하기 위한 평가가 중심이 되면서 혁신의 경험과 성과가 약화되었음.
  - 온라인수업에서는 물론이고 등교수업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한 개별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교육 의존형 교육체제가 강화되기도 했음.

- 사회성 및 관계 형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음.
- 등교수업의 필요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양상이 초래된 원인의 상당 부분이 학교 외적인 것임을 인정해야 하지만, 지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질서(better normal)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음.
  - 학교의 맥락에 맞는 등교 방법 결정
  - 학습돌봄의 가치 구현
  -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의 구분
  -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교원의 역할 분담
  - 프로젝트형 과제 확대
  - 지역사회와의 협조 체계 구축
  - 온라인 수업용 인프라 확충

# I .

## 코로나19와 함께 한 2020학년도 1학기

- 2020학년도 1학기는 코로나19와 함께 한 학기임. 코로나19가 그러한 것처럼 이것과 함께 한 학교와 교육당국도, 교원과 학생, 학부모도 며칠 뒤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음.
- 2020년 1월 20일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을 때만 해도 3월 2일 개학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음. 여러 감염병 학자들이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경고했음에도 그러했음. 당시만 해도 코로나19의 위험과 전파력을 실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학교는 전쟁통에도 멈추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임.
- 대구에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2월 20일에 대구교육청이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을 3월 9일로 연기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코로나19는 교육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됐음. 그러나 2월 21일에 교육부가 대구를 제외한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은 연기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자 여러 사람들은 코로나19는 여전히 예외적이고 지역적인 문제이며, 근본적으로 교육을 휘두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음.
- 그런데 이와 같은 인식은 이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었음. 이후에 전개된 사태는 학교를 급격하게 코로나 사태 속으로 몰아넣었음. 2월 23일에 교육부는 전격적으로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일을 3월 9일로 연기했음. 이후에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자 3월 2일에는 다시 3월 23일로 개학을 연기했고, 3월 17일에 또 다시 4월 6일로 개학을 연기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와 학교는 돌봄과 학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음. 개학은 연기되었지만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긴급돌봄은 진행되었고, 교육부에서는 3월 25일에 ‘원격교육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준비

했음.

- 3월 31일에 교육부는 4월 6일로 연기했던 개학일을 4월 9일로 다시 연기하면서 ‘온라인 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음. 4월 9일부터 개학은 하지만 그 방식이 온라인이라는 것임. 말 그대로 사상초유의 일이었음. 4월 9일에 고3과 중3이 온라인으로 개학하자마자 EBS의 ‘온라인클래스’는 먹통이 되었음. 4월 16일에 고 1~2, 중 1~2, 초 4~6학년이 2차로 개학했을 때에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었음.

〈표 1-1〉 단계적 온라인 개학 현황

학년	4.6~8.	4.9~10.	4.13~15.	4.16~17.	4.20~
고	3 휴업(3일)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9.~)		
	1, 2	휴업(7일)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16.~)
중	3 휴업(3일)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9.~)		
	1, 2	휴업(7일)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16.~)
초	4~6	휴업(7일)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16.~)
	1~3	휴업(9일)			온라인 개학(4.20.~)

- 이 와중에 가장 큰 혼란을 겪은 곳은 단연 학교임. 모든 것이 낯설었고, 앞으로는 물론이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도 없었음.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고 수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임시변통으로 EBS 자료를 연결하거나 자체로 제작한 수업 자료를 업로드 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수업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작동시켜서 플랫폼의 선정이나 온라인 수업 기법 등과 같은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냈음(백병부,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무실은 학생들의 온라인수업 출석을 확인하고 독려하는 담임교사의 목소리와 혼란 속에서 야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문의하거나 항의하는 학부모들의 전화벨 소리가 뒤섞인 공간이 되었음.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 상황이 오래 가서는 안 되며,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온라인 수업에 임했음.



-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1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었음. 5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등교수업이 시작되었지만, 기존의 온라인수업이 등교수업으로 완전 대체된 것이 아니라 두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이었음<sup>1)</sup>. 여기에 더해 방역 수칙과 함께 새로운 상황을 행정적으로 정리 하기 위한 각종 지침이 학교로 전달되면서 학교는 더 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음. 학교구성원 이 합의하여 정리한 학사일정과 수업 및 평가 방식이 당국의 지침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뒤바뀌 는 일이 수시로 일어났기 때문임.
- 아래의 <표 I -2>는 학년별 온라인개학과 등교수업 시작일 및 기 실시한 온라인 수업일수와 1학기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추가로 채워야 할 수업일수 등을 정리한 것임.
-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등교수업 이후 각 학년은 50일 남짓의 수업을 할 수 있었음. 그런데 수도권은 고3을 제외하고는 1/3 이하의 학생만 등교수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은 20일 내외에 불과했음. 이 기간 동안 학교는 밀린 학사일 정과 각종 평가를 진행해야 했음.
- 등교개학을 했지만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임. 촘촘하게 정리된 방역 지침 속에서 어떤 학교는 기존에 수립했던 등교 및 수업 방식을 변경해야 했고, 교사들은 등교개학 전에 학생들이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코로나19로 겪은 고통은 없었는지를 섬세하게 살필 시간적 여유도 없이 1학기 성적 처리를 위한 평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음.

&lt;표 I -2&gt; 학년별 수업일수 현황

	단계	온라인개학	등교수업 시작	1학기 수업일수	기 실시 온라인수업일	등교이후 1학기 수업일
초등 학교	초1-2	4.20.	5.27.	88일	25일	63일
	초 3	4.20.	6.03.	88일	30일	58일
	초 4	4.16.	6.03.	90일	32일	58일
	초5-6	4.16.	6.08.	90일	35일	55일
중 고등 학교	고3	4.09.	5.20.	89일	26일	63일
	고2 / 중3	4.16.	5.27.	89일	27일	62일
	고1 / 중2	4.16.	6.03.	85일	32일	53일
	중1	4.16.	6.08.	85일	35일	50일

1)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업과 등교 방식을 부르는 용어도 혼란스러운 상황임.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개학과 수업을 '온라인개학'과 '온라인수업'으로, 실제 학교에 가서 받는 수업을 '등교수업'으로 지칭하겠음.

- 이 보고서의 마감을 앞둔 지금 대부분의 학교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음. 방학 동안 정책 당국에서는 2학기 등교 지침을 발표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블렌디드 러닝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2020), 교원을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은 방학을 이용해 더 나은 2학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 이 연구는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된 시점에서 학교 구성원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 나가고 있었으며,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것임. 나아가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복기와 성찰을 통해 보다 나은 2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논의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II. 설문조사 분석 결과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등교수업이 시작된 직후인 6월 11일부터 6월 16까지 교원, 학부모,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수업과 등교수업의 실태와 학교구성원들의 요구를 확인하였음.
- 조사 대상은 교원과 학부모는 경기도 관내 학교 재직 교원 및 학부모 전체였고,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음.
- 아래의 <표 II-1>은 설문응답자 현황을 정리한 것임.

<표 II-1> 표본 현황

		교사		학부모		학생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학교 유형	초등학교	12,677	44.6	228,499		55,517	
	중학교	8,559	30.1	129,795		86,918	
	일반고	6,031	21.2	69,024		48,302	
	특성화고	1,178	4.1	6,273		9,348	
학교 소재지	읍지역	3,187	11.2	44,059		25,422	
	면지역	1,616	5.7	15,002		8,449	
	대도시	9,955	35.0	167,376		55,429	
	중소도시	13,687	48.1	207,154		110,785	
전체		28,445	100.0	433,591		200,085	

## 1. 온라인 수업 방식과 효과

### 온라인 수업 방식

#### 실시간 쌍방향 수업보다는 과제 제시 및 자료 제공형 선호

- 교원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을 하는 방식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활용한 수업(31.7%), 외부에서 제작한 영상을 활용한 수업(29.2%)이었음. 반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5.5%에 불과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조사 시점 현재 온라인 수업을 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가면서 교원들의 수업 방식이 자체 제작하거나 외부에서 제작한 영상을 활용한 후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함. 동시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교원들이 부담이 여전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 한편 초등학교는 중, 고등학교에 비해 자체 제작한 영상을 활용한 수업보다 외부에서 제작한 영상을 활용한 수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이러한 결과는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학교 교원들이 자체 제작한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초등학교 교원들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II-2〉 온라인 수업 방식(중복선택 가능)

단위: %(명)

구분	교원				합계(명)	$\chi^2$
	①	②	③	④		
학교급	초	39.2(8,784)	33.0(7,391)	24.4(5,457)	3.4(763)	100(22,395)
	중	30.2(4,348)	26.4(3,800)	37.9(5,451)	5.5(791)	100(14,390)
	일반고	25.9(2,469)	26.3(2,514)	39.3(3,754)	8.4(805)	100(9,542)
	특성화고	30.7(571)	20.4(379)	33.4(621)	15.5(289)	100(1,860)
	합계	33.6(16,172)	29.2(14,084)	31.7(15,283)	5.5(2,648)	100(48,187)

주: ①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을 주는 수업  
 ② 외부에서 제작한 영상을 활용한 수업  
 ③ 직접 제작한 영상을 활용한 수업  
 ④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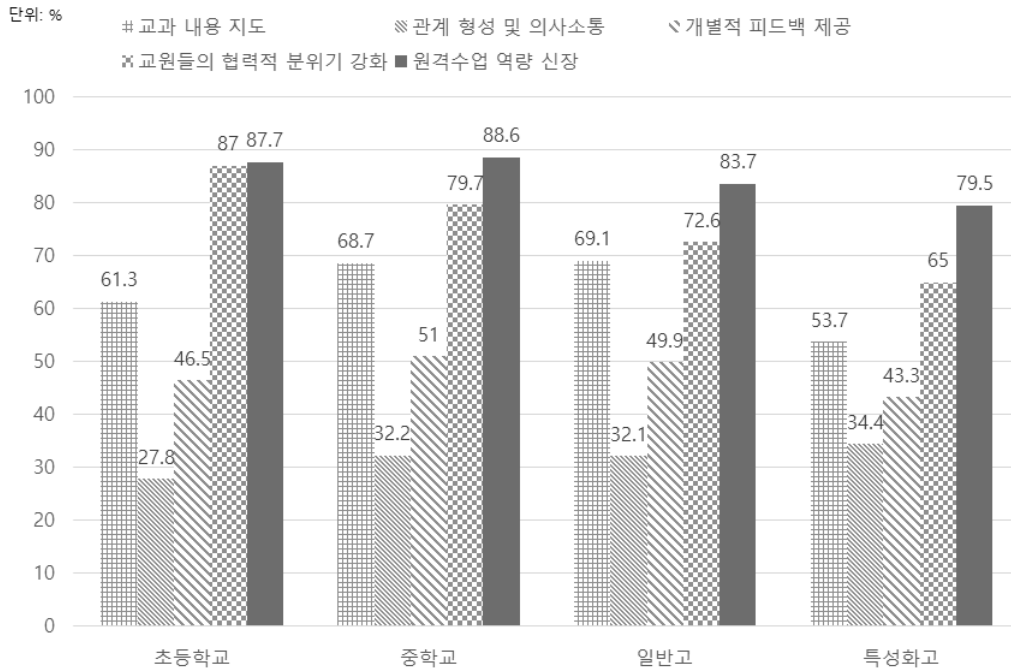
##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

### 온라인 수업 역량 신장 및 협력적 분위기 강화

-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어떤 것인지를 설문한 결과 현재의 경험을 통해서 교원들의 온라인 수업 역량이 신장되고 교원들의 협력적 분위기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 다만 이들 항목에서 일반고와 특성화고 교원들은 초, 중학교 교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음. 특히 교원들의 협력적 분위기가 강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더 두드러졌음. 이와 같은 결과는 고등학교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교과주의나 각개약진의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함.

### 개별적 피드백의 한계와 사회성 및 관계 형성의 기회 부족

- 한편 지금의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교과 내용을 잘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 중, 일반고 교원의 60% 이상이, 특성화고에서도 53.7%의 교원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의 조건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의 상당수가 교사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나아가 교원들은 지금의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는 학생들의 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 능력이 신장되지 못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음. 특히 이와 같은 양상은 중, 고등학교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관계 형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중학교와 일반고, 특성화고에서 각각 32.2%, 32.1%, 34.4%에 불과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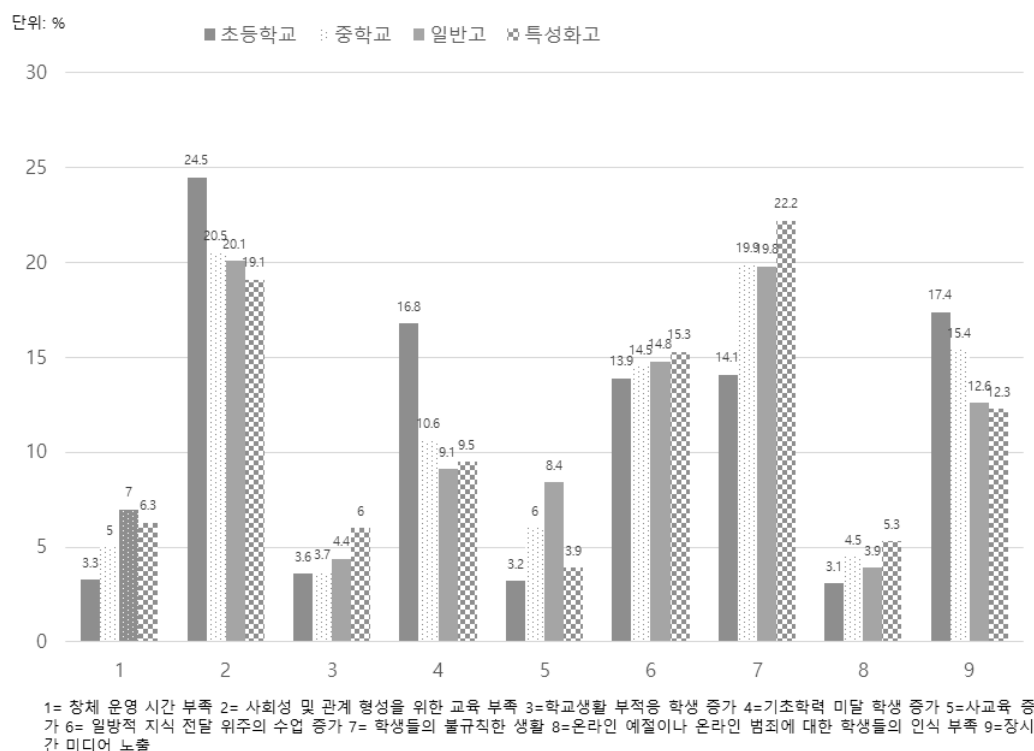
[그림 II-1]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교사)

-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수업의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은 결과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음. 교원들에게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된 것은 사회성 및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의 부족(22.1%)이었음.

## 강의식 수업 및 기초미달 학생의 증가

- 또한 교원들은 일방적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 증가(14.3%)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13.0%)도 심각한 문제로 꼽고 있었음. 이와 같은 결과는 교원들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주어진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대체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전달 위주의 방식이며, 이 과정에서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을 발견하여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이 어려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할 것임을 우려한다는 것을 의미함. 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교원은 초등학교에서 더 많았음.
- 한편 상당수 교원들은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해서도 우려하고 있었음. 특히 중학교 이상의 교원들은 학생들의 불규칙한 생활을 우려하고 있었고(중학교 19.9%, 고등학교 19.8%, 특성화고 22.2%), 초등학교 교원들은 장시간 미디어 노출로 인한 문제를 우려하고 있었음(17.4%).

- 사교육 증가를 심각한 문제로 꼽은 교원은 5.2%에 불과했으나 일반고에서는 그 비율이 8.4%로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았음.



[그림 II-2] 온라인 수업으로 나타난 문제점(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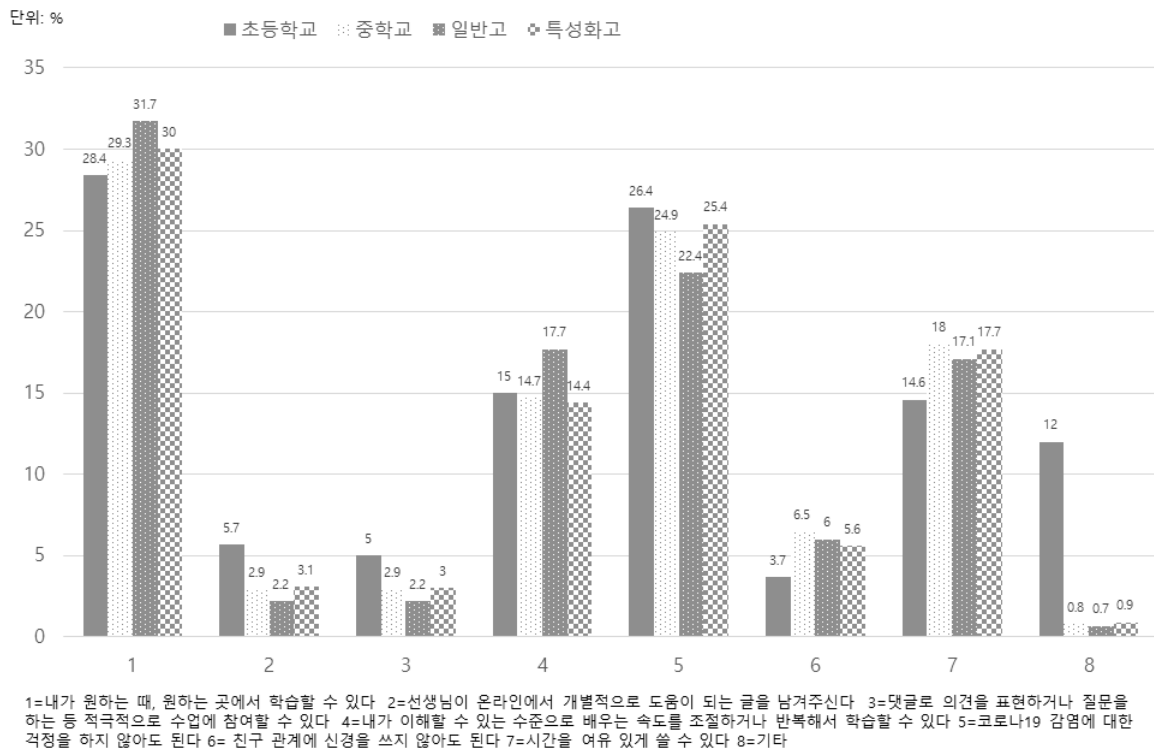
##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단점

### 감염에 대한 걱정 없이 학습과 시간 통제 가능

-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코로나 19 감염 걱정이 없다는 것(=5)외에도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학습할 수 있다는 것(=1)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것(=4), 시간을 여유 있게 쓸 수 있다는 것이 많이 지목되었음.
- 이와 같은 양상은 학교급별로 유사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걱정이 적다는 것을 지목한 학생이 많은 반면 일반고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지목한 학생이 많았음.

## 개별적 피드백과 사회성 함양의 기회 부족

- 한편 개별적인 피드백이나 댓글 등을 통한 소통을 장점으로 지목한 학생은 5%에도 미치지 못해 매우 적었음.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학습이 교사의 일방적인 교과 내용 전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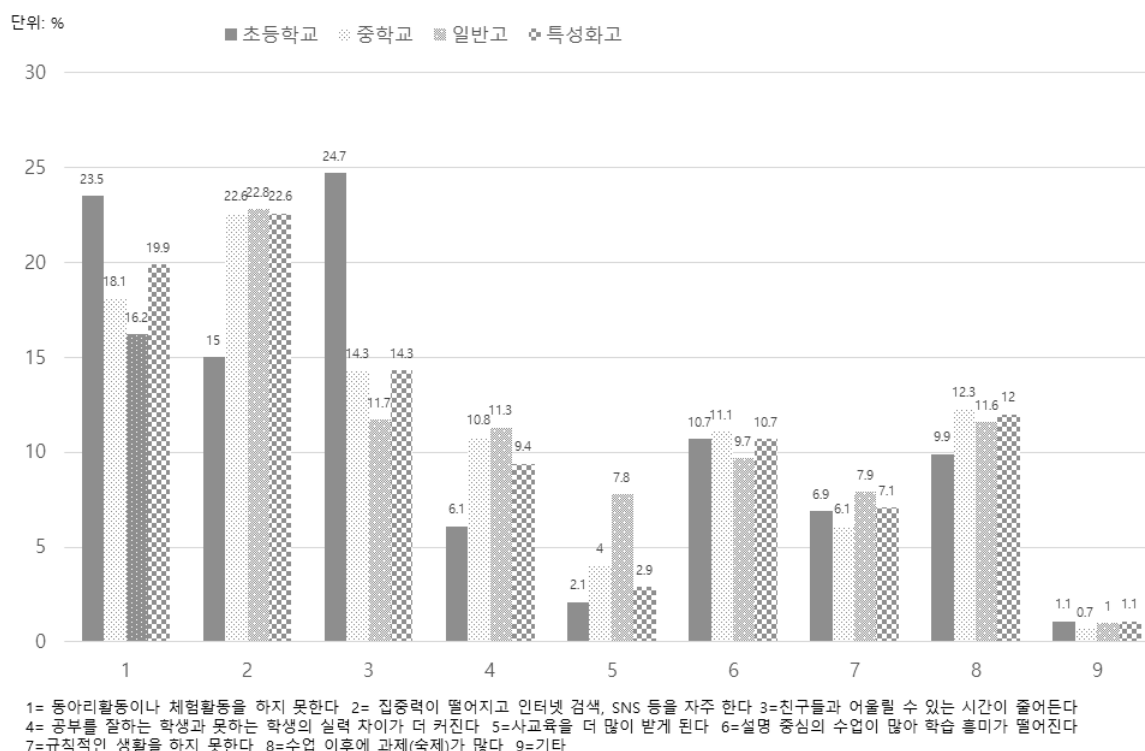


[그림 11-3] 온라인 수업의 장점(학생)

-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터넷 검색, SNS 등을 많이 하는 것(=2)과 함께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1),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3)을 지목한 경우가 많았음. 특히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지목한 경우는 초등학생에게서 더 많은 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터넷 검색, SNS 등을 많이 하는 것(=2)을 지목한 경우는 중학교 이상 학생에게서 더 많았음.
- 이외에도 학생들은 설명 중심의 수업이 많아 학습흥미가 떨어지는 것(=6)과 수업 이후에 과제가 많은 것(=8), 규칙적인 생활을 못하는 것(=7)을 지목한 경우도 많았음. 특히 과제에 대한 부담은 중학교 이상 학생에게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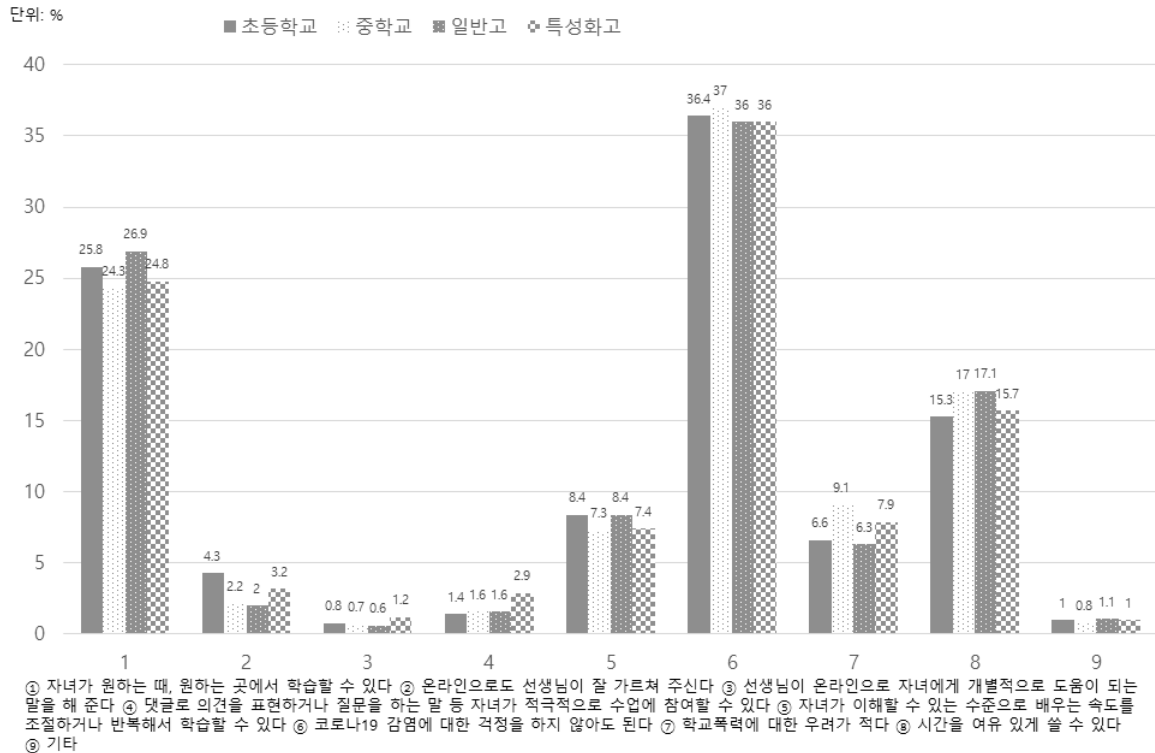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학습이 교사의 일방적인 교과 내용 전달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과제 제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함.



[그림 II-4] 온라인 수업의 단점(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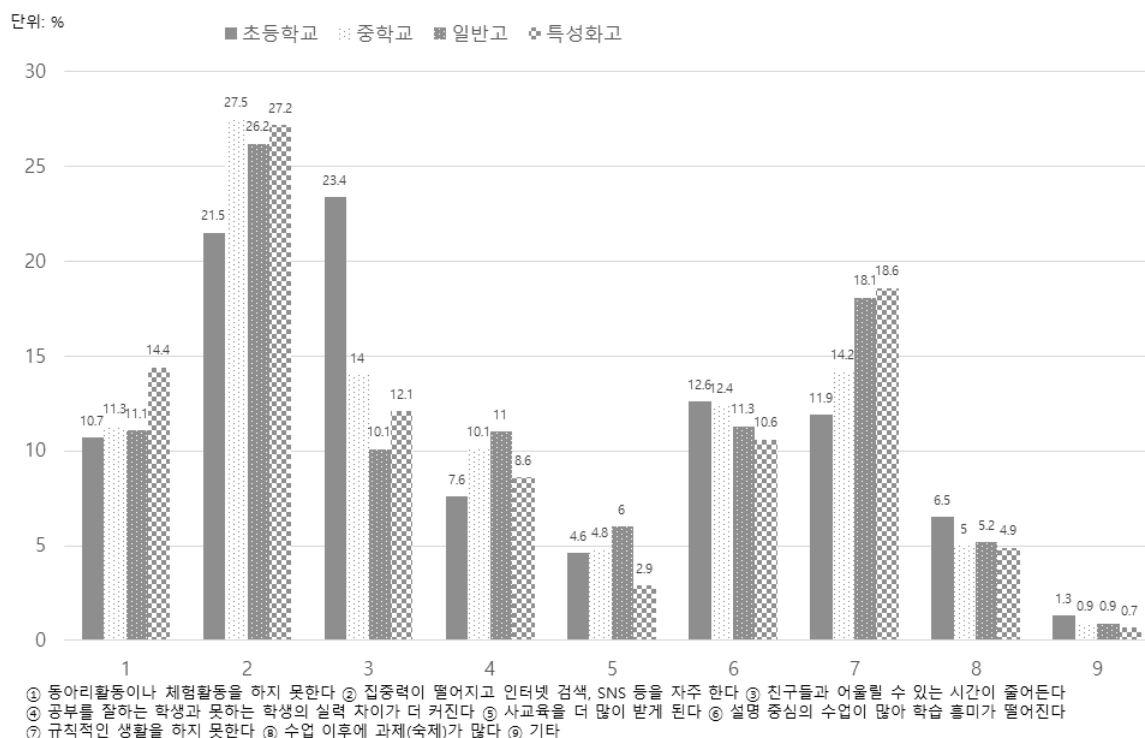
## 만족할 수 없는 학습효과

-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코로나 19 감염 걱정이 없다는 것(=6)과 자녀가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학습할 수 있다는 것(=1), 시간을 여유 있게 쓸 수 있다는 것(=8)이 많이 지목되었음. 반면 온라인으로도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신다거나 개별적인 피드백이나 댓글 등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지목한 경우는 매우 적었음.
- 이와 같은 양상은 앞에서 기술했던 학생들의 응답과 유사한 것으로서 학부모들은 현재의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학습효과와 관련해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II-5] 온라인 수업의 장점(학부모)

-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설문한 결과도 학생과 유사했음. 구체적으로 학부모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터넷 검색, SNS 등을 많이 하는 것(=2)과 함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3)을 지목한 경우가 많았음. 특히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지목한 경우는 초등학교 학부모에게서 더 많은 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터넷 검색, SNS 등을 많이 하는 것(=2)을 지목한 경우는 중학교 이상 학생에게서 더 많았음.
- 이외에도 학부모들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설명 중심의 수업이 많아 학습흥미가 떨어지는 것(=6)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7)을 지목한 경우도 많았음. 이러한 결과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학습이 교사의 일방적인 교과 내용 전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 상당수 학부모가 우려하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II-6] 온라인 수업의 단점(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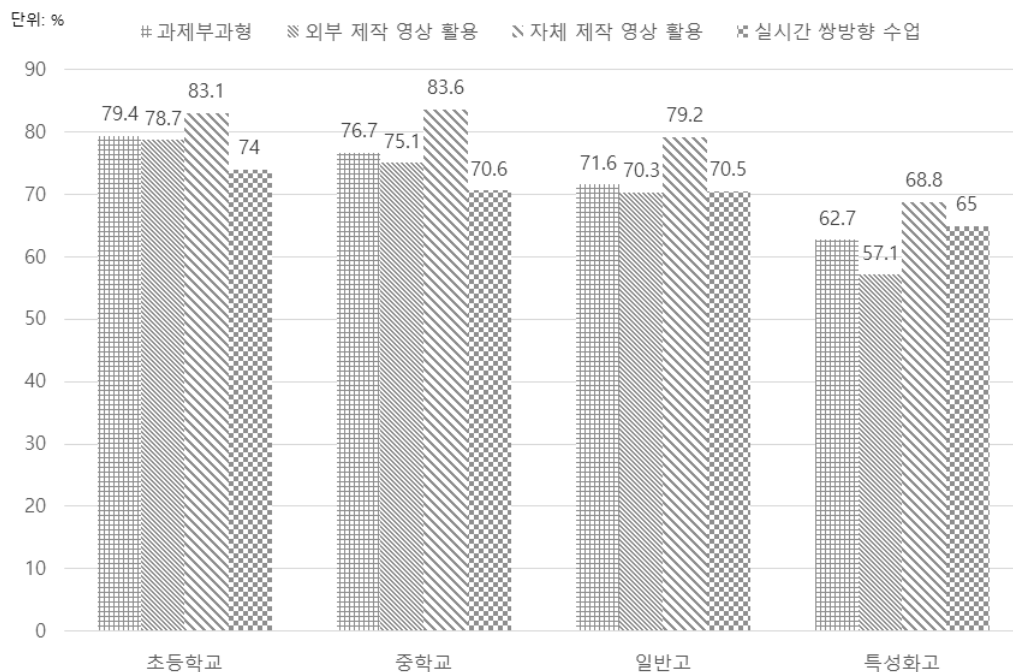
## 온라인 수업 유형별 효과

### 성취기준 도달 가능성: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아니어도 가능

- 교원을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자체 제작한 영상을 활용한 수업에서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여기에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교원은 초, 중, 일반고에서 각각 83.1%, 83.6%, 79.2%로 80% 수준이었으며, 특성화고에서도 68.8%에 달했음.
- 그 다음은 과제부과형으로 여기에서도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초, 중, 일반고, 특성화고에서 각각 79.4%, 76.7%, 71.6%, 62.7%에 달했음.
- 한편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가장 낮았으며, 일반고에서는 외부에서 제작한 영상을 활용한 수업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들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외의 방법으로도 학생들이 성취기준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나아가 이와 같은 결과는 기술적 여건이나 심리적 부담 등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꺼리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 모두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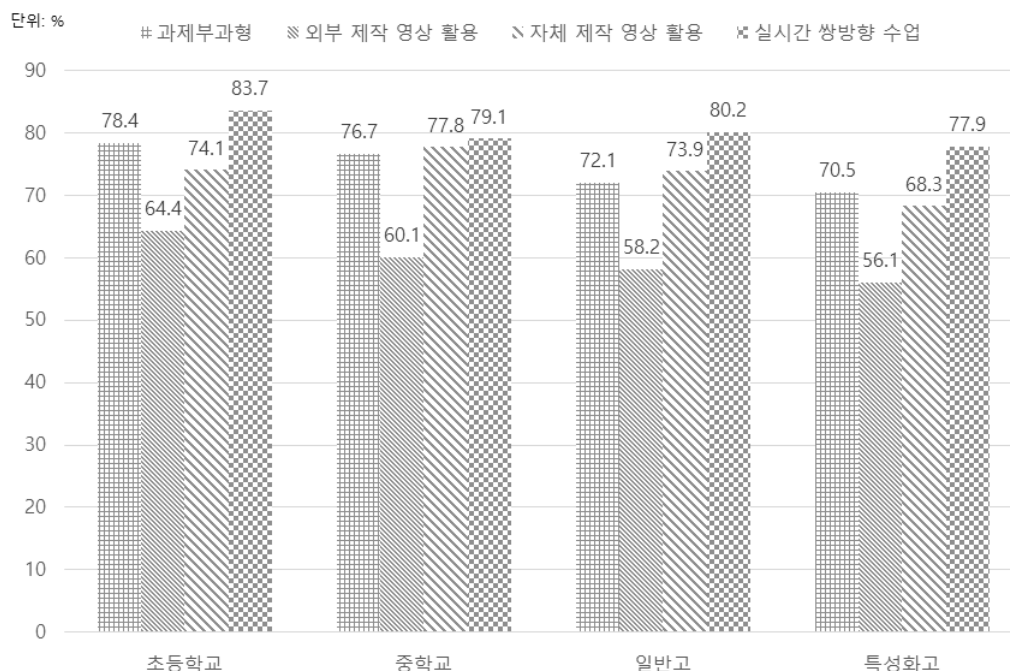


[그림 II-기] 온라인 수업 유형별 성취기준 도달 가능성(교사)

## 소통 및 피드백 제공: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우세

- 한편 교원들은 학생들과의 소통이나 피드백 제공의 측면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교원을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실시간 쌍방향으로 진행된 수업에서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여기에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교원은 초, 중, 일반고, 특성화고에서 각각 83.7%, 79.1%, 80.2%, 77.9%에 달했음.

- 과제부과형이나 자체 제작한 영상을 활용한 수업에서도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70%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들이 과제부과형이나 자체 제작한 영상을 활용한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과하고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과의 소통이나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 한편 학생과의 소통이나 피드백 제공의 측면에서는 외부에서 제작한 영상을 활용한 수업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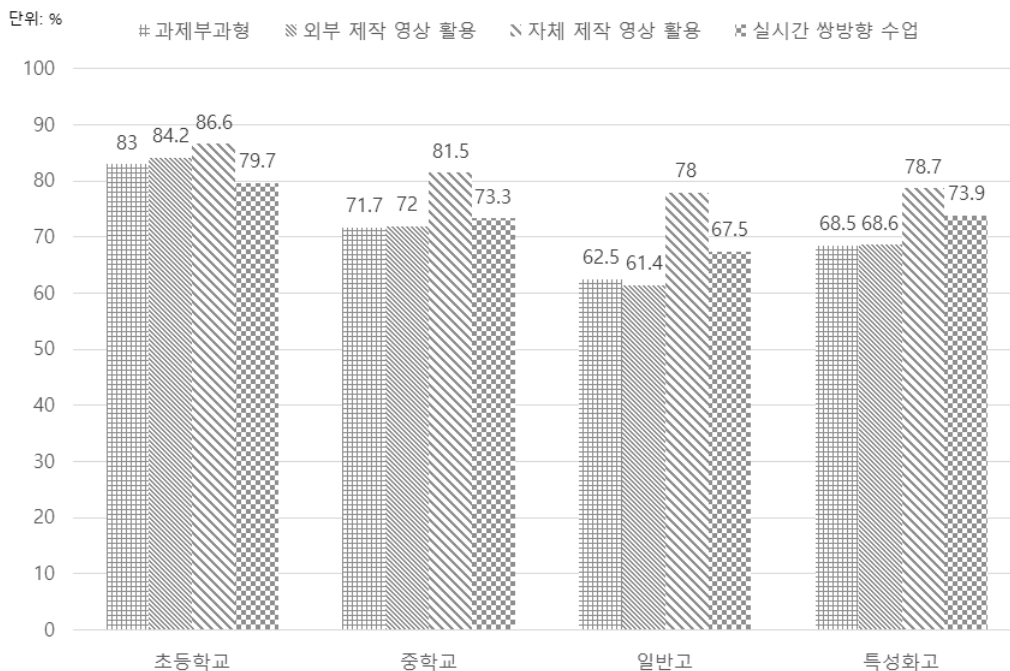


[그림 II-8] 온라인 수업 유형별 학생과의 소통 및 피드백 제공 가능성(교사)

- 이와 같은 양상은 학생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자체 제작한 영상을 활용한 수업에서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여기에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교원은 초, 중, 일반고, 특성화고에서 각각 86.6%, 81.5%, 78.0%로 78.7%에 달했음.
- 자체 제작한 영상 수업 다음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교급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음. 초등학교에서는 과제부과형과 외부에서 제작한 영상을 활용한 수업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된 반면, 중학교와 일반고, 특성화고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과제부과형이나 외부에서 제작한 영상을 활용한 수업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특히 그 차이가 중학교보다는 일반고와 특성화고에서 더 두드러졌음.

- 이러한 결과는 교원과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외의 수업으로도 성취기준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특히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서는 자체 제작한 수업을 활용한 것과 외부에서 제작한 영상을 활용한 것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당해학교 교원들이 제작한 영상의 학습효과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의미함.
- 다만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은 교원에 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은 현재의 조건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학습의 효과 측면에서는 과제부과형이나 외부에서 제작한 영상을 활용한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임.



[그림 11-9] 배울 것을 제대로 배우고 있음(온라인 수업 유형별, 학생)

## 2. 등교수업에 대한 기대와 실제

### 등교수업에 대한 기대

#### 만남과 활동, 밀도 있는 학습에 대한 기대

- 학생을 대상으로 등교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어떤 생각과 기대를 했는지를 묻은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시간을 보내거나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수업을 기대했다는 응답이 각각 92.9%와 89.4%로 가장 많았음.
- 중학생과 특성화고 학생에게서는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했다’에 이어 온라인 수업의 내용을 보충해 주기를 바랐다는 응답이 82.1%로 활동중심수업에 대한 기대보다 높았음.
- 일반고 학생에게서는 온라인 수업의 내용을 보충해 주기를 바랐다는 것이 87.1%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모두에서 선생님과 상담을 기대했다는 응답이 각각 59.6%와 58.5%로 초, 중학교보다 높았음.
-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은 등교수업을 통해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대하는 동시에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온라인 수업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보충과 선생님과 상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 나아가 이와 같은 결과는 친구들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중학교 이상에서는 교과 내용에 대한 학습 및 개별적 피드백과 관련해서 온라인 수업이 갖고 있는 한계를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함.

#### 상당수 학생이 등교수업 필요 없다고 응답

- 한편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등교수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학생 또한 상당하여 중학교에서는 33.9%, 일반고와 특성화고에서는 각각 43.6%와 48.4%에 달했음.
-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의 효과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당수 학생들

이 온라인 수업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학습과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임.

## **등교수업의 실제**

### **온라인수업보다 학습효과 높음**

-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로 등교수업을 했을 때 어떠했는지를 설문한 결과 학교급을 막론하고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다는 응답이 80%를 상회했음. 일반고를 제외한 초, 중학교와 특성화고에서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었으며, 원격수업을 할 때보다 수업내용이 더 쉽게 이해되었다는 응답도 80%에 육박했음.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복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음을 의미함.

### **고등학교에서는 등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다수**

- 다만 일반고에서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64.3%, 원격수업을 할 때보다 수업내용이 더 쉽게 이해되었다는 응답이 70.8%로 다른 학교급보다 낮았음. 등교수업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웠다는 응답 또한 일반고와 특성화고에서 각각 45.4%와 51.5%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 높았음.
-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제공된 학습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교수업을 받고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정해진 학사일정에 맞추어 진도를 나가고 평가를 하는 데만도 시간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개입을 할 만한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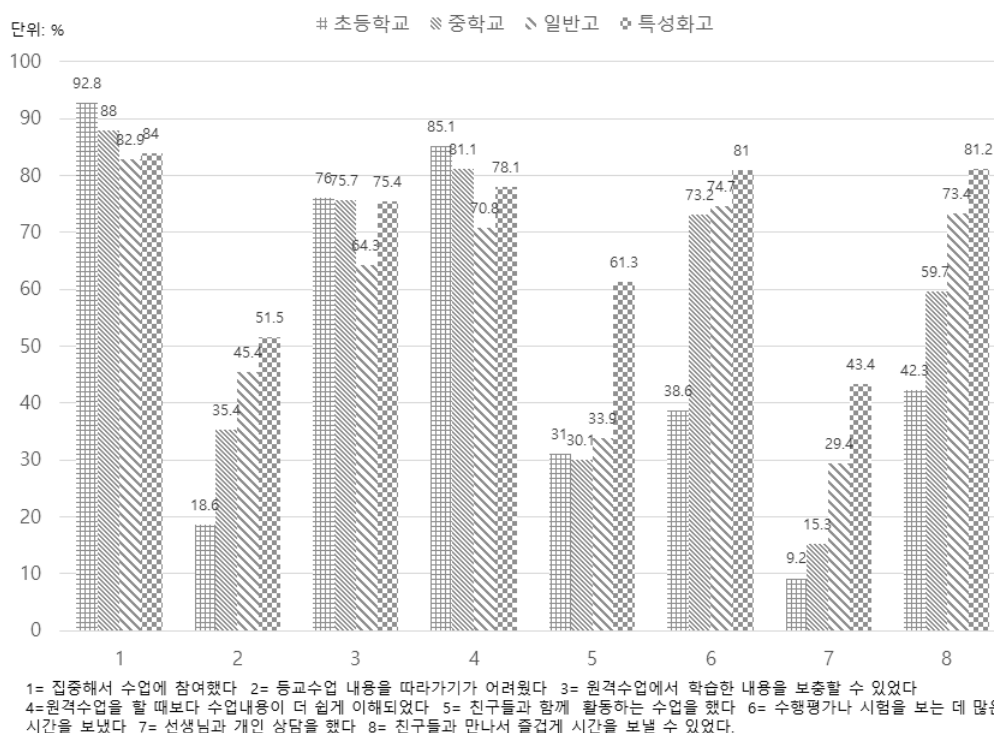
### **강의식 수업과 수행평가, 시험**

- 수업 방식과 관련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수업을 했다는 응답이 특성화고에서는 61.3%였지만 다른 학교급에서는 30% 수준에 불과했음. 수행평가나 시험을 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응답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38.6%였지만, 다른 학교급에서는 70%를 상회했음. 이러



한 결과는 상당수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에 이어 등교수업마저도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업 시간의 상당 부분을 평가에 할애하고 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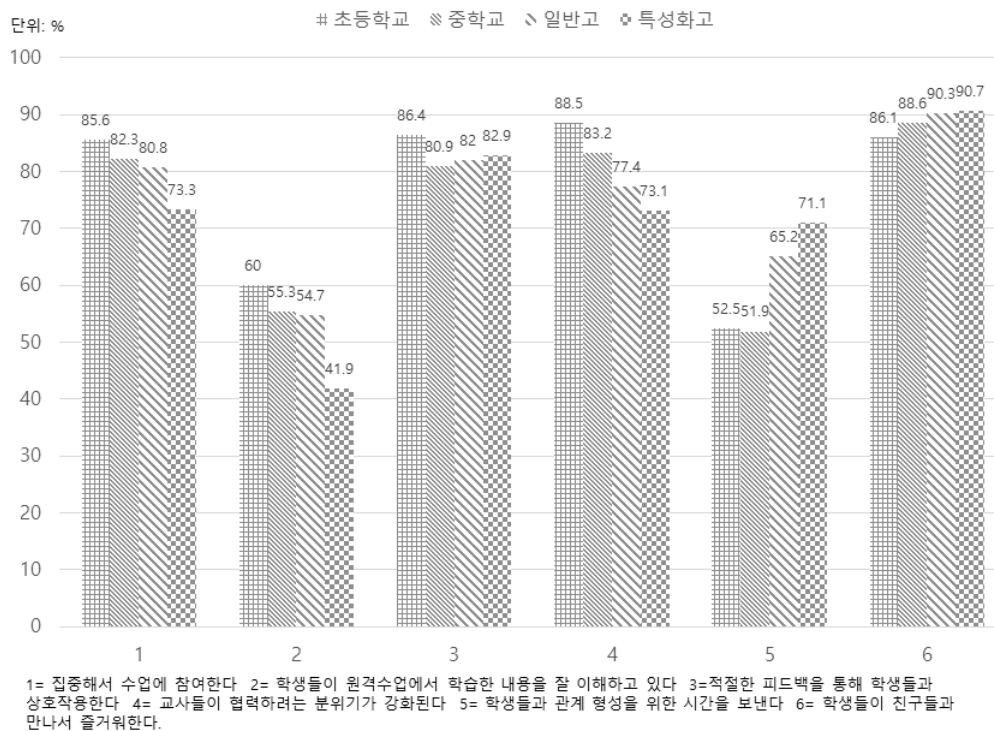
- 한편 학생들은 교사와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으로 관계에서의 결핍을 해결하고 있었음. 교사와 개인 상담을 했다는 응답은 특성화고에서는 43.4%였지만, 다른 학교급에서는 30%에도 미치지 못했음.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에서는 그 응답이 각각 9.2%와 15.3%에 불과했음. 이러한 결과는 등교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방역 관리의 책임을 지면서 온라인 수업 내용을 보충하고, 밀린 진도를 나가면서 평가를 하는 것 이외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등교수업 후 친구들과 만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음. 초등학교에서는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2.3%에 그쳤지만, 중학교와 일반고, 특성화고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각각 59.7%, 73.4%, 81.2%에 달했음.



[그림 II-10] 등교수업의 실제(학생)

-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 결과에서도 교원들은 학생들이 등교수업에 집중해서 참여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친구들과 만나서 즐거워한다고 응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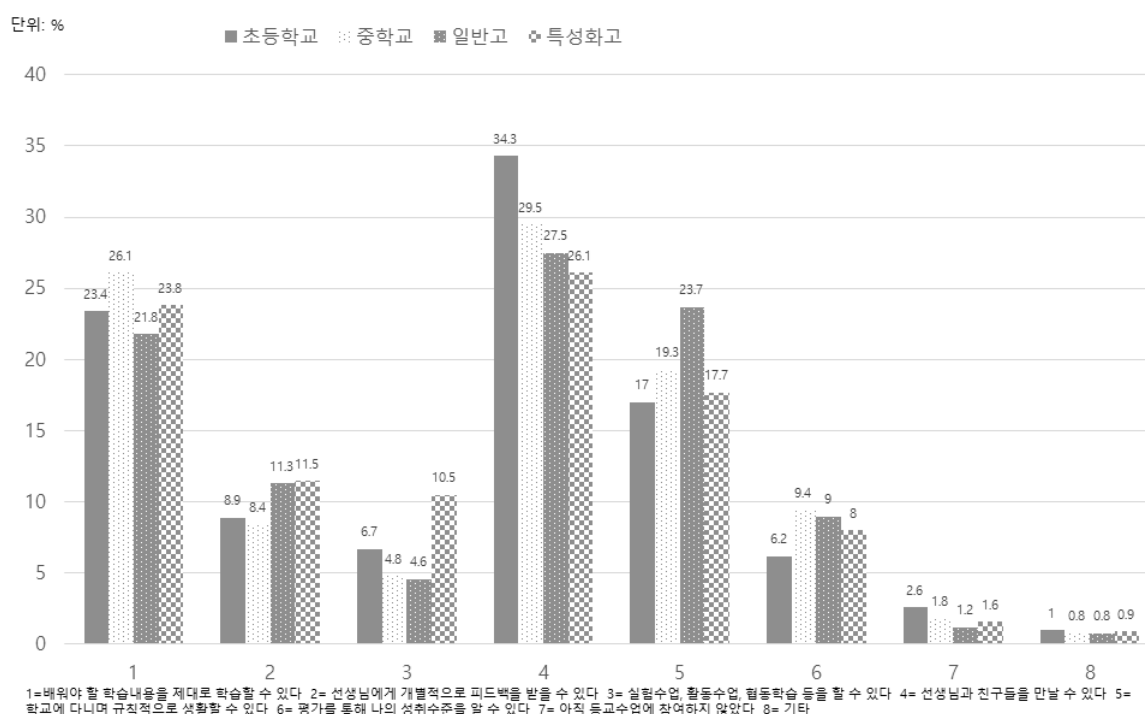
- 반면에 교원들은 학생 응답에 비해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했음. 여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반고에서 각각 60.0%, 55.3%, 54.7%였고, 특성화고에서는 41.9%에 불과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원들의 80% 이상은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과 상호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또한 교원들의 과반수 이상은 학생들과 관계 형성을 위해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하여 앞에서 기술한 학생 응답에 비해 스스로의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 교원들은 교사들이 협력하려는 분위기가 강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음.



[그림 II-11] 등교수업의 실제(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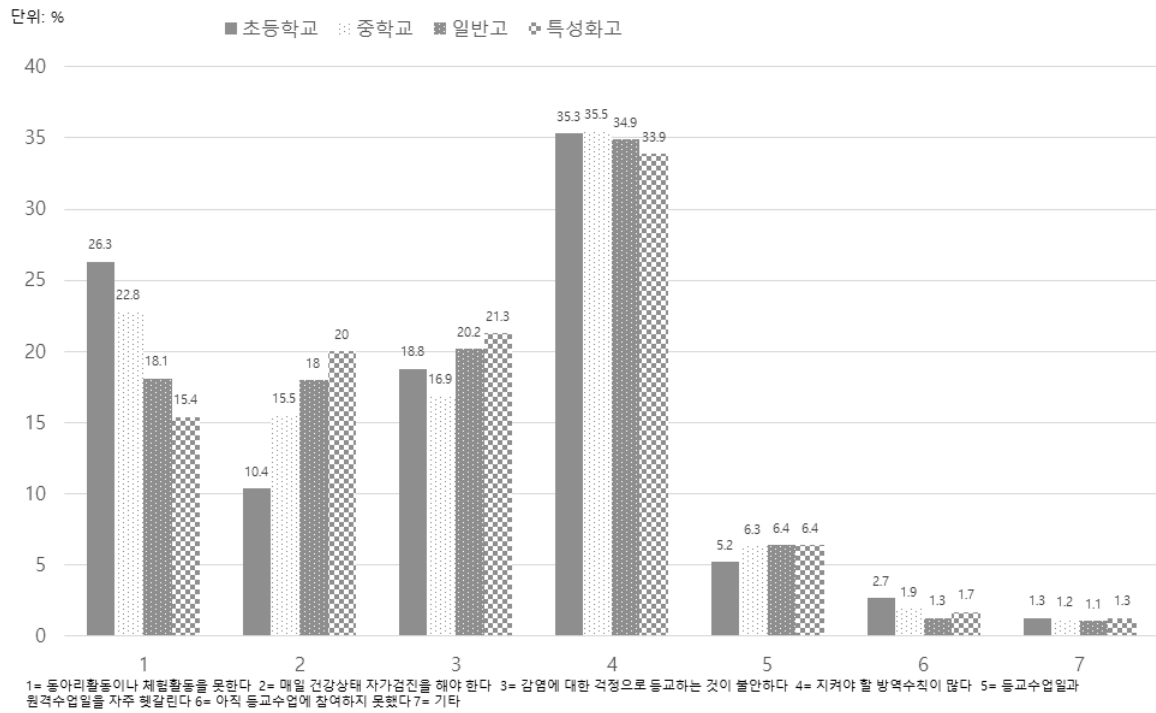
## 등교수업의 장점과 단점

- 학생을 대상으로 등교수업의 장점을 지목하게 한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지목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이 밖에도 학교에 다니며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과 배워야 할 학습내용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지목한 경우도 많았음.
- 반면 개별적인 피드백과 활동중심수업, 평가를 통한 성취수준 확인 등을 지목한 경우는 10% 수준에 불과하거나 그 이하였음.



[그림 II-12] 등교수업의 장점(학생)

- 학생을 대상으로 등교수업의 문제점을 지목하게 한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목한 경우가 많았음. 이 밖에도 초등학생들은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지목한 경우가 많았고,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은 자가검진이나 감염에 대한 우려를 지목한 경우가 많았음.



[그림 II-13] 등교수업의 단점(학생)

### 3.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한 요구

#### 온라인수업에서 어려운 점과 요구

##### 수업과 연계한 평가의 어려움 및 학력격차

- 교원들에게 현재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의 어려운 점을 설문한 결과 수업과 연계한 다양한 평가 실시의 어려움을 지목한 교원이 가장 많았음. 이밖에도 교원들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과 수업에 활용할 콘텐츠 및 기술적 지원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었음.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는 수업과 연계한 다양한 평가 실시의 어려움과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에 이어 학력격차 심화에 따른 학습지원의 어려움을 지목한 교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반면,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이나 과제에 대한 피드백의 부담을 지목한 교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고등학교에서는 원격수업 기술의 한계 및 기자재 지원의 미비를 지목한 교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표 II-3〉 원격수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

단위: %(명)

구분	교원										합계(명)	$\chi^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초	14.0	11.9	18.8	11.8	15.3	2.8	3.8	4.3	2.1	15.1	100(38,031)	
중	11.0	12.9	21.5	12.7	13.9	2.3	6.8	3.4	6.2	9.4	100(25,677)	
일반고	9.6	14.5	21.5	11.2	14.0	2.6	5.9	3.8	8.5	8.5	100(18,093)	2,705.522***
특성화고	12.5	13.1	20.9	10.7	15.2	2.6	5.2	3.0	8.6	8.3	100(3,534)	
합계	12.1	12.8	20.3	11.9	14.6	2.6	5.2	3.9	5.0	11.7	100(85,335)	

주: ① 수업에 활용할 콘텐츠 지원 부족  
 ② 원격수업 기술의 한계 및 기자재 지원 미비  
 ③ 수업과 연계한 다양한 평가 실시의 어려움  
 ④ 학생들의 활동이나 과제에 대한 피드백의 부담  
 ⑤ 소극적 참여 학생에 대한 지원  
 ⑥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과 회의감  
 ⑦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실시에 대한 강요  
 ⑧ 다른 학교(학년, 교사) 또는 사교육과 비교하는 분위기  
 ⑨ 상담 및 진학지도의 어려움  
 ⑩ 학력격차 심화에 따른 학습지원의 어려움

## 콘텐츠 개발과 공유 및 통일된 가이드라인

- 교원들에게 현재와 같이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해야 한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설문한 결과 교육청 주도로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공유, 출결, 평가,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 제시를 지목한 교원이 가장 많았음. 이 외에도 학습관리 및 평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요구한 교원도 많았음.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청 주도로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공유에 대한 요구가 많은 반면, 다른 학교급에서는 출결, 평가,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 제시를 지목한 교원이 가장 많았음.
- 반면에 원격수업 기자재 구축이나 무선인터넷망, 원격수업 관련 연수를 요구한 교원은 10%에도 미치지 못했음.

〈표 II-4〉 원격수업을 계속해야 할 때 필요한 지원

단위: %(명)

구분	교원							합계(명)	$\chi^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초	46.2	23.9	14.0	4.6	5.8	2.0	3.4	100(12,677)	1,826.580***
중	25.8	37.1	18.8	7.1	6.1	2.1	3.0	100(8,559)	
일반고	20.6	38.1	18.9	10.5	6.3	2.4	3.2	100(6,031)	
특성학교	24.9	34.3	20.9	8.6	5.5	3.2	2.6	100(1,178)	
합계	33.8	31.3	16.8	6.8	6.0	2.1	3.2	100(28,445)	

주: ① 교육청주도의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콘텐츠 개발 및 공유  
 ② 출결, 평가,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 제시  
 ③ 학습관리 및 평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④ 단위 학교에 원격수업 기자재 구축  
 ⑤ 학내 무선인터넷망 설치  
 ⑥ 원격수업 관련(동영상 제작, 블렌디드수업 등) 연수  
 ⑦ 기타

## 등교수업에서 어려운 점과 요구

### 두 유형의 수업 준비 부담과 방역 조건 준수의 어려움

- 교원들에게 현재 상황에서 등교수업의 어려운 점을 설문한 결과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과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야 하는 부담을 지목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이밖에도 방역지침 등으로 수업 방식이 제한되는 것과 평가에 필요한 시간의 부족을 지목한 경우도 많았음.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는 다른 학교급에 비해 평가에 필요한 시간의 부족을 지목한 교원은 적은 방역 지침 등으로 수업 방식이 제한되는 것을 지목한 교원은 많았음.

〈표 II-5〉 등교수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

단위: %(명)

구분	교원							$\chi^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초	9.5	7.7	22.0	11.6	24.5	23.7	1.1	100(25,354)
중	8.4	20.1	14.5	11.5	21.0	23.5	1.0	100(17,118)
일반고	9.0	17.3	12.4	13.7	19.5	27.0	1.0	100(12,062)
특성화고	11.3	18.8	9.8	11.8	21.4	26.5	0.3	100(2,356)
합계	9.1	13.9	17.2	12.0	22.3	24.4	1.0	100(56,890)

주: ①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간 확보의 어려움  
 ② 평가에 필요한 시간의 부족  
 ③ 방역지침 준수 등으로 인한 수업 방식의 제한  
 ④ 발열체크 등 방역 관련 업무의 부담  
 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  
 ⑥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해야 하는 어려움  
 ⑦ 기타

- 현재와 같이 등교수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할 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설문한 결과에서는 학사일정 운영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 보장을 지목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표 II-6〉 등교수업을 계속할 때 필요한 지원

단위: %(명)

구분	교원					$\chi^2$
	①	②	③	④	⑤	
초	17.6(2,229)	20.8(2,641)	6.6(836)	47.9(6,067)	7.1(904)	100(12,677)
중	21.5(1,836)	18.8(1,606)	5.1(439)	48.0(4,109)	6.6(569)	100(8,559)
일반고	23.7(1,430)	19.8(1,196)	8.3(503)	42.4(2,557)	5.7(345)	100(6,031)
특성화고	24.4(287)	13.1(154)	8.0(94)	51.1(602)	3.5(41)	100(1,178)
합계	20.3(5,782)	19.7(5,597)	6.6(1,872)	46.9(13,335)	6.5(1,859)	100(28,445)

주: ① 교과별 최소 성취기준 이수를 위한 등교수업 일수 확보  
 ② 방역에 대한 보조 인력 지원  
 ③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지원  
 ④ 학사일정 운영에 대한 학교 자율권 보장  
 ⑤ 기타

### Ⅲ.

## FGI

## 분석 결과

- 이 연구에서는 병행등교 이후 학교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지역 여건과 학교급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일반고등학교 4개교, 특성화고등학교 1개교 등 10개교를 선정하고, 이들 학교의 교원과 학생, 학부모를 초점집단으로 구성하여 면담을 진행했음.
- 초점집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 각 1집단과 고등학교의 교원과 학생, 학부모 각 1집단 등 6집단이었고, 7월 13일과 7월 20일에 각 집단마다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를 할애하여 집단면담을 진행하였음.
- 주로 다루어진 내용은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 각각의 장점과 단점, 병행등교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등이었음.
- 이 연구에서는 설문 및 FGI 분석 결과의 의미를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 관련 우수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학교의 교원과 I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였음.



〈표 III-1〉 FGI 및 전문가협의회 구성

집단	참여자	비고
초·중학교 학생	가초등학교 A(6학년, 전교어린이회장) 나초등학교 B(6학년) 다초등학교 C(4학년) 라중학교 D(2학년, 학생자치회 부회장) 마중학교 E(3학년, 학생자치회 회장)	
고등학교 학생	바고등학교 F(2학년, 학생회장) 사고등학교 G(2학년) 아고등학교 H(3학년) 자고등학교 I(1학년) 차고등학교 J(3학년, 학생회장)	
초·중학교 교사	가초등학교 1(6학년부장, 통합학급 담임) 나초등학교 2((연구부장, 1학년 담임) 다초등학교 3(1학년 담임) 라중학교 4(연구부장, 원격수업 총괄) 마중학교 5(연구부장)	가초등학교: 중간 규모 도시 소재 나초등학교: 중간 규모 도시 소재 다초등학교: 읍면지역 소재 라중학교: 대도시 소재 마중학교: 대도시 소재
고등학교 교사	바고등학교 6(교무부장) 사고등학교 7(다문화학생 지도) 아고등학교 8 자고등학교 9(진로진학상담교사) 차고등학교 10	바고등학교: 대도시 소재(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지역) 사고등학교: 중간 규모 도시 소재 아고등학교: 중간 규모 도시 소재 자고등학교: 소도시 소재 차고등학교: 대도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초·중학부모	가초등학교 가(3, 6학년 학부모, 학부모회장) 나초등학교 나(3, 5, 6학년 학부모) 다초등학교 다(1, 4학년 학부모) 라중학교 라(3학년 학부모, 학부모회장) 마중학교 마(3학년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장)	
고등학교 학부모	바고등학교 바(2학년 학부모, 학부모회장) 사고등학교 사(2학년 학부모) 아고등학교 아(2학년 학부모) 자고등학교 자(1, 3학년 학부모) 차고등학교 차(3학년 학부모, 학부모회장)	
전문가협의회	가초등학교 교감, 다초등학교 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파고등학교 교사, 하고등학교 교사, IT기업 부장	

## 1. 온라인 수업에 대한 평가

### 기술적 안정화 이후 각개약진

- 면담에 참여한 교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 최근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수업에서는 초기에 겪었던 기술적 어려움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음. 초기에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학교구성원들의 당혹스러움에 더해 디바이스가 없는 학생도 있었고,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적 결함 등과 같은 문제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와 같은 문제의 대부분이 해소되었다는 것임.
- 나아가 일부 학교에서는 동학년 동교과를 담당하는 교원들이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온라인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고, 일부 학교에서는 교원들의 자발적인 논의를 통해서 단방향 수업이 갖는 한계를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확대하기도 했음.
- 교원들은 불과 두세 달 만에 온라인 수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 교원들의 협력문화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들고 있었음. 위기 속에서 공동체의 힘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교원들은 적절한 온라인 플랫폼과 수업 방식을 결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 등을 함양하는 과정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틀 안에서 집단적으로 논의하고 공동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임.
- 그런데 면담에 참여한 여러 교원들은 초기에 겪었던 기술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시점부터는 각각의 교사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들 사이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음. 나아가 교원들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전달되는 각종 지침 때문에 학교구성원들이 합의한 방식대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젊은 교사와 고경력 교사, 담임과 비담임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었음.
- 일부 교사는 학교 차원에서는 자체 제작한 수업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온라인 수업 방식이 결정되었지만,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교사들을 젊은 교사들이 지원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젊은 교사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으며, 일부 교사가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시도하

고 싶어도 다른 교사의 ‘눈치’가 보여서 ‘살짝 몰래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는 점을 말하기도 했음.

저희 학교도 처음에 엄청나게 우왕좌왕 시작했다가, 이제 자체 제작이 안정화가 됐지만 선배 교사, 후배 교사의 갈등이 저희 학교도 많이 심해졌거든요. 못하시는 선생님들을 배려해서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점점 한계가 오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 선생님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애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는데 동교과 선생님이 계시고, 선배 교사님이 계시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 하고, 학교에서 정해진 플랫폼대로만 해야 되고. 뭔가 하려면 뒤에서 살짝 몰래 해야 되는 그런 조심스러운 느낌.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담임과 비담임 간의 갈등이 엄청 심하죠(마 중학교 교사-5).

- 이와 같은 양상은 여러 학교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비롯한 집단지성의 힘으로 당면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고는 있지만 수시로 전달되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침에 더해 등교개학 이후 가중된 업무 등으로 온라인 수업에 충분한 품을 들일 수 없는 조건이 겹쳐지면서 각개약진의 문화가 나타나는 학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특히 교원들은 등교개학과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면서 온라인수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토로했음. 등교개학 이후 학교는 방역과 평가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온라인 수업에 이전과 같은 만큼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시간을 투자할 수 없었다는 것임.

등교하기 전에 온전히 온라인 학습을 할 때는 조금 더 질이 높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끼리 서로 모여서 영상을 편집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스킬을 좀 더 높이고 공유하느냐 그런 고민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중략)그렇게 하다가 이게 등교랑 병행이 되면서 너무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유 등교할 때 집중해야지, 등교할 때 아이들 대면수업이 중요하고 또 아이들 와서 살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또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조금 안일해 지면서...(나 초등학교 교사-2).

- 또한 교원들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외의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된 활동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제한적인 상황 또한 온라인 수업을 소홀히 하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었음. 평가에 반영되는지 여부가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결정하는 주요 동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외의 온라인 수업에서 평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결국 여러 교원과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소홀히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임.

온라인에서 한 것은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맹점이에요. 학생에게 동기가 유발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든 수행평가든 포트폴리오든 학습 참여든 세특이든 선생님이 보고 피드백 해준 것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평가 지침 자체가 온라인상은 그냥 제로거든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 아이를 데려와서 교실 수업에서 무언가를 했을 때 써주겠다는 거죠. 결국 온라인수업은 죽은 수업이 되고...(사 고등학교 교사 -7).

## 학교별 교사별 편차

- 전술한 양상은 그대로 온라인 수업에서 학교별, 교사별 편차로 이어지고 있었음. 서로 다른 지역에 소재한 학교 간에는 물론이고 같은 지역 안에 있는 학교 간에도 수업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같은 학년의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교원들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일부 교사는 온라인 수업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교사는 2~3분짜리 외부 콘텐츠를 올리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다가 요즘에는 그마저도 하지 않는 사례를 이야기하기도 했음.

일단 저는 가장 좋았던 거는 학교 교과서를 컴퓨터로 보여주면서 거기에다가 직접 필기도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중요 포인트 같은 것을 노트 필기를 직접 해주세요. 그런 선생님 강의가 제일 듣기가 좋고 기분도 좋았고. 공부도 더 잘 되고 이해도 잘 됐던 것 같고. 가장 싫었던 것은 저희는 한 2~3분짜리를 틀어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거 듣고 끝이에요(사고등학교 학생 G).

온라인 수업도 저는 세 가지로 나뉘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실시간 수업이고, 두 번째가 유튜브고, 세 번째는 그냥 과제만 던져주는 선생님들 계세요. 저 같은 경우 일단 실시간 수업은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보통 실시간 많이 하세요. 실시간 수업 때는 학생들도 그렇고 저 또한 다 만족하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저희 학교 학생들은 그래도 공부에 대한 열의가 많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과제만 던져주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유튜브 같은 것도 안 올리시고, 과제만 교과서 보고 알아서 해라 이런 것도 있어서 저는 그게 별로인 것 같고(바고등학교 학생 F).

- 나아가 이 연구에서 진행한 면담에 참여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 자리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학교 간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기도 했음. 그리고 학부모들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었음.

- 한편 교원들은 이와 같은 차이가 당해 학교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교과별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기도 했음.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지역이나 학교의 상황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도 있으며, 교과가 특정 단원의 특성에 따라서는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것임.

지금 컴퓨터라든가 프린터라든가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학생이 많아요. 최대한 실시간 쌍방의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출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요. 최대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학생한테 출결에 관한 피해가 오지 않게끔 해주자 해서 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회의 결과를 통해서 일주일 정도의 기한을 주었습니다. 기한을 주고 그 안에 과제라든가 출결 체크를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아고등학교 교사-8).

- 같은 맥락에서 면담에 참여한 교원 중에는 소속 학교가 교원들의 논의를 거쳐 모든 과목을 실시간 쌍방향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으며,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온라인 상에서 모둠활동이나 발표수업도 진행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같은 면담에 참여한 교원들은 그 학교가 주변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음. 쉽게 말하면 잘 사는 동네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임.
- 사정이 이렇다면 학교 주변의 환경이나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온라인 수업의 양상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음. 나아가 이와 같은 양상은 수업 방식의 차이에 따른 학습의 격차 또한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함.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가정환경이 좌우하는 학습의 성과

- 면담에 참여한 교원과 학부모들은 온라인학습의 효과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가정환경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음. 온라인학습을 통해서 제공되는 콘텐츠나 전달 방식이 학습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라인학습 환경에 놓여 있는 학습자의 태도와 가정의 조력이라는 것임.
- 이와 같은 양상은 면담에 참여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아래의 두 사례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있는 학생이 온라인 학습을 의미 있게 활용한 것이고, 세 번째는 그렇지 않은 사례임.

저는 방학 때도 늦잠을 못 자게 해요. 왜냐하면, 늦잠이 습관이 되면 개학 후에도 힘들 것 같아서요. 계속 개학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관리 차원에서 아무리 늦어도 8시에는 기상할 수 있게끔 했어요. (중략) 저희 아이는 학교 안 가는 날에도 가는 날과 똑같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는 날처럼 긴장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IT 중점 학교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쌍방향으로 온라인 수업을 계속해서요. 처음부터 출석도 다 체크하고 선생님께서 화면에 아이들이 안 보이면 찾으시고 하셔서. (중략)지금은 등교할 때보다 아이한테 여유가 생기고 체력적으로 덜 힘들어하는 게 보였지만, 처음에는 아이가 불안해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면수업이 아니니까, 그리고 생활기록부나 이런 활동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안감이 많이 컸는데, 지금은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등교수업은 다녀오면 엄청 힘들어하고, 선생님들도 밀렸던 수행평가를 많이 내주셔서 정말 다른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수행평가가 밀린 거를 해야 하니까,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더 좋아하는 거 같아요(바고등학교 학부모 바).

저희 친구들은 대부분 등교 수업보다는 원격 수업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등교 수업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로감이 있고. 원격수업은 자기 마음대로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도 늘고. 게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들을 수 있고. 내가 놓친 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부분만 다시 들어도 되고. 질문 올리면 언젠가는 답이 오니까 그걸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학원가는 친구들은 온라인 수업 들으면 시간이 등교 수업보다는 훨씬 빠르게 끝나요. 빨리 학원가서 공부를 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좋아하는 친구들 많아요(사고등학교 학생 G).

제 친구들은 온라인클래스를 잘 안 듣는 편이라서. 온라인 클래스 틀어놓고 그냥 자기들은 자면 되니까 온라인 클래스가 너무 좋다고. 어차피 온라인클래스든 등교 수업이든 자기들은 잘 거니까. 학교 가서 자느니 집에서 자는 게 좋다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자고등학교 학생 I).

- 교원들은 이와 같은 양상이 중상위권 학생과 중하위권 학생의 학습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있거나 가정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중상위권 학생들은 온라인학습이 오히려 더 나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여 있어서 의미 있는 학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임.
- 고등학교 교원 중 한 명은 중간고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우려가 학생들의 실제 성적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말했음. 성적 분포가 정상분포에서 U자형 분포로 변화했다는 것임.

자기생활을 이끌어가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중상위권 학생들 경우에는 오히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관리를 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학습이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가서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없고요.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집에 있느냐 없느냐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맞벌이 가정이고, 조손 가정이고 한부모 가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집에서 스마트기기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틀어놓고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영상을 보게 되거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매우 많더라고요(사고등학교 교사-7).

실제로 저희 1차 집계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반적인 성적 분포가 보이지 않고 역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성적 분포가 U자형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점수대로 그 이유를 분석해 보았는데, 자기주도학습이 되는 학생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학습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중간 단계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40점대에서 70점대 학생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20점대 학생이나 한 번으로 찍는 학생이 결과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U자형 분포 결과가 나왔어요(아고등학교 교사-8)

- 여러 교원들은 오프라인 수업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강제적으로라도 수업에 참여하게 되며 동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기의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음. 그리고 교원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 양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꼼꼼하게 피드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은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었음.

원격 수업에서 피드백 잘 되고 저는 그거 되게 의심스러워요. 피드백 되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스템도 불편하지만 제가 어떤 것에 대한 댓글을 의무적으로 달라고 할 때만 애들이 의무적으로 다는데 그것도 조심스러워서 다른 애들 눈치 보느라고 댓글 달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애들한테 메일 보내라, 쪽지 보내라, 선생님이 피드백 해줄게, 그런 애들이 극히 적고요. 실시간 한 번 했을 때에도 여자 애들이 얼굴을 살짝 보이게 한다던가...(마 중학교 교사-5).

원격수업은 접속은 했는데 화면을 꺼놓고 있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빈 교실에서 수업하는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00야! 대답해!' 하는데 대답 안하고 '카메라 켜봐!'하면은 대답이 없어요. 심지어 수업이 다 끝나서 '이제 나가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나가요. 그냥 접속만 하고 딴 거를 하고 있는 건데...(바고등학교 교사-6).

-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 또한 온라인 수업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잘 되지 않아 혼자서 학습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었음. 실시간 수업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학습은 원하는 시간에 자신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모르는 것을 질문하거나 자신의 과제물에 대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제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임.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하루 안에 수업을 다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7교시에 있는 수업을 1교시에 들을 수도 있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방이 있기는 한데 거기로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이 오는 경우는 드물어서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사고등학교 학생 G).

- 면담에 참여한 교원과 학부모들은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학생들의 사회성 결핍과 스마트 기기 과몰입 현상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었음.

제 생각은 학교라는 곳은 학습에 대한 배움을 위한 곳이 아니거든요. 사회성이라든가, 맨 처음에 작은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집단인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이런 식으로, 줌으로 해서 맨날 모든 게 계속 이렇게 간다면 사실 학교를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한다는 인강 선생님 수업을 들어서 수업을 나가는 게 낫지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학교를 가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나초등학교 학부모 나).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쪽 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가 확진자가 생기거나 이러면. 사실 아이들이 온라인의 수업을 잘 못해서 우려되는 게 아니라. 애네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세대처럼 온라인에 너무 익숙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일찍 기계에 노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스마트 기기가 너무 그냥 애네들한테 쉽게 주어져서 집중도가 사실 떨어지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딴 유튜브 사이트로 새기도 하면서(라중학교 학부모 라).

## **뜨거운 감자, 실시간 쌍방향 수업**

- 면담에 참여한 교원들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필요성이나 그 효과에 대해서 완전히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음. 다만 1학기의 경험을 통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교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었음.
- 실제로 면담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확대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처음에 온라인 수업, 이제 너희 개학했어 했을 때 갑자기 알람을 맞춰놓고 세수하고 자기 머리 스타일 점검하고 그러더라고요. 상반신이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들어가서 막 하니까 그때부터 좀 긴장감이 떨어지더라고요. 편한 자세로 막 듣고, 스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정말 계속 되어지면 어쨌든 애는 수업을 듣긴 듣지만, 어떤 긴장감 없이 계속 이게 가겠구나 하는 우려가 생기면서. 학교 가는 동안 쌍방 수업에 대한 기기 조작이라든지, 사실 새로 또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애들한테, 엄마한테도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런 안내들을 좀 받고 와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어도 잘 아이가 적응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나초등학교 학부모 나).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 학교에서는 2학기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음. 특히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이 다른 학교급보다 낮았던 초등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음. 초등학교에서는 대체로 외부 콘텐츠를 연결해 주거나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외부 콘텐츠를 연결해주는 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는데다가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교과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서 매번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임.
- 문제는 이와 같은 인식이 곧바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실시간 수업을 하기 위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임.
- 그런데 면담에 참여한 여러 교원들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낮은 경험치가 이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음. 이와 같은 지적은 학교 차원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이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들에게서 더 자주 언급되었음. 나아가 이들은 심리적 부담과 낮은 경험치의 문제는 일단 해보고 나면 쉽게 해소되는 것이었다는 점도 언급했음.

저희가 실시간으로 결정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이 되었을 때 단방향, 과제형, 쌍방향 중에서 어떤 걸 선호할까,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을까 생각했을 때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당연히 학생이나 학부모로서는 쌍방향을 받고 싶을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선생님들의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은 심리적, 기술적 부담 때문에 선생님들은 과제형을 원하셨어요. 사실 단방향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단방향도 EBS를 원하셨지 자체 제작을 원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필요한 건 학생과의 소통과 피드백을 강조하셨어요. 어렵지만 결국 소통과 피드백이 없으면 교육할 수 없다는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저희가 쌍방향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쌍방향으로 결정하고 진행하면서도 정말 어려웠어요. (중략)처음에는 원격 수업 때문에 휴직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던 선생님들께서 1주일 반 정도 지나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 시기에 휴직을 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신규교사 때처럼 재미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 분위기가 협력적인 분위기가 되었고, 학교에서 20대 초반에 교직경력이 전혀 없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인싸’가 되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선생님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하고등학교 교사).

- 한편 면담에 참여한 교원들 중에는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실시간 쌍방향을 수업을 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음. 1학기의 경험을 통해서 일부 교사는 ‘편한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정형화된 수업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한 강제를 통해서라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그런데 면담에 참여한 다수 교원들은 일부 교원들에게서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은 또 다른 파행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음. 이들은 교사들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강제하는 것은 별도로 논의될 문제라고 보고 있었음. 교사들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교과와 특성에 맞게 수업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임.
- 이와 같은 언급은 1학기의 경험을 통해서 교사들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기 싫어서 혹은 하지 못해서 안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상통하는 것이기도 함.

저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줘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격 안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특성에 맞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쌍방향 수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교사들이 쌍방향 수업이 하기 싫으니까 쌍방향 수업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부정적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사들이 쌍방향 수업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역량을 갖추고 나서 이제 “우리의 교과와 이 단원은 어떤 원격이 더 잘 맞아”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면 원격 안에서도 아이들이 충분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는 쌍방향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학기 진행해보니 선생님들이 원격 안에서도 교실 수업처럼 해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쌍방향 대신 모든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갖춘 상태에서, 그 전문성을 외부든 학생이든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하고등학교 교사).

## 2. 등교 수업에 대한 평가

### 방역과 평가에 가로막힌 혁신교육

- 면담에 참여한 교원들은 1학기 동안 진행된 등교수업이 이전에 경험했던 등교수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에서 언급했던 온라인 수업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등교수업을 추진했지만, 1학기에 진행된 등교수업은 온라인 수업의 충분한 대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임.
- 여러 교원들은 그 원인으로 촘촘한 방역 지침 속에서 제한된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꼽고 있었음.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최소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체험학습이나 체육대회 등과 같은 교과 외 활동 또한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임.

35명이 정말 좀비처럼 앉아있거든요. 강의식 수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수업 방법에도 다 제한이 따르니까. 거의 상호작용을 하기 힘들고. (중략) 저희가 등교 개학을 굉장히 기대했지만, 애들은 평가에 치이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체험학습도 다 취소되고, 체육대회 다 취소되고. 그러니까 애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학교에 놀러 온 애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마 중학교 교사-5).

- 나아가 여러 교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수업이 그 동안 강조했던 학생중심수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으로 결핍된 것을 보상해 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음.

애들하고 거리를 두어라, 복도도 가운데에 줄 긋고 일방통행 해야 된다, 거리두고 지내야 된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걱정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거의 다 수업이 배움 중심 수업으로 많이 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ㄷ자로 책상 놓고 앉아서 정말 활동도 많이 하고 수업을 했던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복습을 하는 쪽으로, 등교하면 복습을 해줘야 되는 거였고. 그러면 활동, 모둠활동 못 한다, 개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걱정이 됐었고. 실제로도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다 가림막이 있고, 마스크 쓰고, 자기 자리 앉아서. 떠드는 애들은 없어요. 방해하거나 이런 애들도 한 명도 없지만 일방적인 강의가 도대체 이게 얼마만큼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라중학교 교사-4).

- 여기에 더해 등교개학 한 날의 대부분을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의 확인과 평가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 소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음.

등교한 날부터 애들이 평가에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틀 만에 평가 준비하고 평가 보고, 과제 내고 하면서 선생님도 지치고. 선생님들은 또 주말에 원격 때 한 걸 다 검사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등교했을 때 굉장히 업무가 많이 몰렸고(마 중학교 교사-5).

1, 2학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격주로 나오다 보니 지필고사 기간, 진도확보에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수행평가도 일정 부분 이상으로 무조건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학교 나오는 기간에 사실은 온라인과정에서 할 수 없는 학생과의 관계형성도 해야 할 것이고 학교 안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학교를 나오는 주간은 형성평가에만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선생님들한테 무얼 더 어떻게 하라기에는 힘들죠. 아침에 온라인 주간에 교무실 들어가 보면 거의 콜센터예요. 선생님들 난리가 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침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중으로 등교하는 학생이 또 발생한다고 했을 때에는 선생님들은 더 바빠지는 상황이에요(아고등학교 교사-8).

## 만남의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고...

- 면담에 참여한 교원과 학생들의 대부분은 등교개학이 결정되었을 때 많은 기대를 했다고 이야기했음. 등교를 하게 되면 온라인 학습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도 보충할 수 있을 것이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만나면서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임. 특히 온라인 학습 상황이 길어지면서 학생들의 사회성 결핍이나 스마트 기기 과몰입 현상을 우려했던 교원과 학부모들에게서는 이와 같은 기대가 더 컸음.
-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등교 개학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이와 같은 기대가 충족된 것처럼 느꼈다고 이야기했음. 그러나 이들은 앞에서 기술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처음의 기대와 만족감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면담에 참여한 교원과 학생들은 등교 개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이나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음.

친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좋아서요 그냥 학교 가는 게 재미있는데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도 쉬는 시간이 5분이라서 말을 한다고 해도 선생님께서 오셔서 “들어가세요.” “앉아있으세요.” 라고 하세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선생님께서 계속 서 계셔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못 해요. 수업시간에도 모둠활동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국어 같은 경우는 그런 수업이 많은데, 저희는 온라인 수업에서 글쓰기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수행 평가도 글쓰기로만 끝을 냈고, 그룹 활동은 하나도 없었던 거 같아요(라중학교 학생 D).

학생회 같은 경우, 저희 학교가 원래 선후배 관계가 돈독한 게 학교의 자랑이고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서로 말할 기회도 없고 만날 기회도 없으니까 대가 끊긴 것 같아서 되게 아쉽고. 원래 선후배 친하면 공부 관련해서 모를 수도 있고, 서로 갈등이 생기면 그런 거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접촉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게 가장 많이 아쉬워요(아고등학교 학생 H).

- 나아가 일부 학생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에 더 의존하는 경향도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고 있었음.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반복되고 있고, 등교수업을 할 때도 방역 지침이나 각종 수행평가 때문에 제대로 된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이 등교수업의 효과보다는 온라인 수업의 편안함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임.

저는 등교수업 한다고 했을 때 온라인클래스가 영상도 짧고 그래서 등교수업 한다고 해서 좋긴 했는데. 막상 등교수업 하니까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 것도 아니고 수행평가가 엄청 많아 가지고 진도도 제대로 잘 못 나가는데. 수행평가를 막 하루에 6개씩 하던 날도 있고. 수행평가 많으니까 일단 수업을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온라인클래스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해요(자고등학교 학생 I).

온라인으로 하다가 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되게 설렜고 그랬는데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온라인 수업할 때보다 더 삶이 활기차진 것 같고요. 공부 같은 면에서도 저는 확실히 온라인보다 선생님들이랑 대면 수업 하니까 훨씬 효율성도 좋았고 머리에 잘 들어오고 좋았는데. 점점 이게 이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 안 듣고 놀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아내고. 그런 자기만의 방법들을 터득해서 수업을 제대로 안 듣는 학생들도 시간 지나면서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처음엔 저도 좋지만,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온라인 수업에 더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바고등학교 학생 F).

### 학습결손과 흐트러진 생활리듬의 결과...

- 면담에 참여한 중,고등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으로 학생들의 성적 차이가 심해졌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있거나 사교육의 도움을 받은 친구들은 등교개학을 해서도 큰 어려움 없이 수업과 평가에 임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등교 개학 후 진행된 수업과 평가가 매우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것임.

처음에는 다들 처음 만나는 거니까 들떠있었는데.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빠릿빠릿하게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클래스를 잘 안 들으면 수업이 뭘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애들이 전멸을 하고 엎드려 있어요. 제가 맨 앞자리인데, 티비가 비치잖아요. 그걸로 뒤를 보면 애들이 다 엎드려 있어요(자고등학교 학생 I).

- 또한 면담에 참여한 중,고등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과 등교수업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생활리듬이 깨졌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음. 일부 학생들은 이와 같은 생활 속에서 학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했음.

저희 반에 원래는 한 중상위권 되는 애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며칠 있다가 수업을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연락 한 번 하는데 왜 안 듣냐 했더니 이거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그냥 포기하는 듯한 자포자기하는 듯한 말을 하더니. 등교 하고 나서도 그냥 열심히 잘 듣던 애가 자기만 하고 쌤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아고등학교 학생 H).

공부를 잘해서 전교에서 3등도 하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온라인 수업이 되니까 새벽 내내 게임하고 피시방 가고 친구들끼리 여행가고 그러니까 애가 진짜 정신병이 와 가지고. 우울증도 오고. 스토리 같은 것 보면 게임 막 하고 이러는데 수업 벌써 끝나 있다고 그런 것도 스스로 올리고. 지금은 아예 공부를 일절 안 하게 되고. 제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다 재는 조금 애가 망가졌다 이런 애들이 개 말고도 몇몇 있어요(차고등학교 학생 J).

## 사교육 의존형 체제의 강화

-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교육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했음. 온라인 수업은 물론이고 등교수업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업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사교육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임.

저희는 수업이 좀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원래는 학원을 안 다녔다고 했는데, 갑자기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생기고. 막 학원에 보통 애들이 2~3시간 있었으면 갑자기 배로 늘어나고. 학교에서보다는 학원에서 수업 대신 배우고 하는 것도 늘어나고. 애들이 하니까 저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좀 많아요(사고등학교 학생 G).

- 이와 같은 우려는 학부모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음.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지금은 정상적인 학습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으며, 학생들은

사교육 기관에서 내주는 숙제를 하느라 학교 수업은 등한시하게 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임.

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터지고 처음에는 학원을 안 보내기는 했었는데, 사실 한두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특히 수학이나 영어라든가 하는 부분은 이 수업만으론 정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변의 아이들이 지금 대부분 학원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또 학원은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e 학습터보다는 학원 숙제라든가 외부에서 하는 교육이 더 우선시되고(마중학교 학부모 마).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엄마들이 빨리 끝내고 했대요. 그래서 주변에 과외를 하나 더하고 그러면 저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이 떨어진 과목들이 있다 보니까. 막상 우리 아이는 수행평가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입시제도가 아이한테 불리한 쪽으로 가다 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0분 수업을 30분 만에 들으니까 오후 4시에 끝나야 할 수업이 1시에 끝나서 과외를 하나 더 해야겠다고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더라고요(아고등학교 학부모 아).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양상이 교우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학교 친구를 사귀에만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친구는 학원 친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임.

5교시, 6교시를 몰아서 다 하고 1시 조금 넘으면 하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아이는 아무래도 저학년이다 보니까 너무 가기 싫어하고. 왜냐하면 자주 가면 모를까. 그래서 중요한 게 아이들이 친구 이름을 아직 다 몰라요. 오늘은 새로운 반, 이제 등교 수업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봤을 거니까. 오늘은 누구랑 얘기했어? 얘기 못 해, 그러면 새로운 친구는 사귀었어? 이러면 아니, 얘기 못 한다니까. 이름은 알아? 아니, 이름도 몰라.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학원 친구가 친구예요. 학교 반 친구는 친구가 아니고. 학원 친구가 친구가 되더라고요(나초등학교 학부모 나).

## IV. 요약과 제언

-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놓았음.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커지고 있음.
- 혹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함. 지금까지의 체제를 유지시켜온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코로나19와 같은 집단감염은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것임. 이들은 지금의 위기를 상수로 놓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교육 또한 마찬가지임.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2020학년도 1학기는 코로나19와 함께 한 비정상의 시기였음. 학교 구성원들은 3월 2일에 개학을 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비정상의 경험을 했음. 여기에 더해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은 학교 구성원을 둘러싼 비정상의 상황을 가증시켰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책 당국과 학교 구성원들은 비정상이 야기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 정책 당국은 온라인 개학과 병행 등교를 위한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교원들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작동시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음.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발휘하여 온라인 학습을 했으며 까다로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학교생활에 임했음. 가정과 지역사회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음. K-Edu의 저력은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한 것임.
- 동시에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초래된 여러 한계 또한 목도할 수 있었음.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여기에 해당함. 그 중의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수업혁신의 경험과 성과가 약화되었음. 경기혁신교육은 학생의 협력적 활동과 참여를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의 혁신을 추진해왔음.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상당수 수업이 강의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학교는 학생들의 상대적 서열을 정하기 위한 평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음.
- 학생들의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한 개별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어려운 온라인 수업에서는 물론이고 방역과 평가가 우선시된 등교수업에서도 그러했음. 병행등교 상황이 되자 온라인수업만 할 때처럼 의미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여력도 없어졌음. 이와 같은 상황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낮거나 가정의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의 학업적 어려움을 가중시켰음.
-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교육 의존형 교육체제가 강화되기도 했음.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사교육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안전망’으로 인식되었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전보다 더 심한 교육불평등을 목도하게 될 것임.
- 사회성 및 관계 형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음.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면서 학교 구성원들은 사회성 및 관계 형성에서의 결핍을 우려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결핍은 등교개학을 한 이후에도 지속되었음.
- 등교수업의 필요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뛰어나거나 가정의 교육적 조력을 갖춘 학생은 온라인 수업과 사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학생은 온라인 수업의 편리성과 등교수업의 답답함 때문에 등교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현재 상황에 대처하는 학교별, 교사별 편차가 드러나면서 특정 학교나 교사를 불신하는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양상이 초래된 원인의 상당 부분은 학교 외적인 것임. 며칠 뒤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확산세, 학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방역 조건을 제시하면서도 등교개학을 감행한 정책 당국의 결정,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 지침의 잦은 변경과 뒤늦은 전달 체계가 초래한 학교 현장의 혼란, 불과 20여 일의 등교수업일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이 그것임.
-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불변의 것으로 가정하고 2학기를 맞이하게 되면 1학과 별반 다르지 않은 2학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점임. 나아가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코로나19가 만든 새 질서(new normal)는 이전보다 나쁜 질서(worse normal)가 될 것임.
- 지금의 경험을 보다 나은 질서(better normal) 창출을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맥락에 맞는 등교 방법 결정: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학기 때 경험한 혼란의 상당 부분은 예측불가능성에서 기인함.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정책 당국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가급적 빨리 등교수업을 강행하고자 했기 때문임.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음. 2학기에는 2차 대폭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학자들 또한 상당함. 따라서 정책 당국에서는 전국 수준에서 등교수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 학교의 특성에 맞게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을 적절히 병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 학교에서는 가급적이면 등교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되, 학교의 규모나 지역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2학기 전체의 등교 방법을 결정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2부제 등교를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음.
- 학습돌봄의 가치 구현: 학교가 등교 일정과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습돌봄의 가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함.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학기의 상황은 더 많은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결국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각 학교에서는 1학기 때처럼 학년을 기준으로 등교 인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서의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등교 인원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들 학생은 당해 학년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학교에 와서 교사 혹은 마을의 개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의 구분: 등교수업의 양태를 그대로 온라인 수업에 적용하는 것은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목표로 한 학습효과를 얻을 수 없음. 대면수업은 다양한 형태의 수업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처럼 세밀하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대면수업과 동일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동시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도 없음. 쌍방향 수업이 다른 유형의 수업보다 소통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모든 수업을 실시간 쌍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학생들이 처한 학습상황(예: 스마트폰으로 수업에 참여)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교사들이 쌍방향 수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온라인 수업 방법을 익히고 단원이나 성취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함. 이렇게 할 때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환경이 다채로워질 수 있음. 다만 이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교사가 직접 제작하거나 교사의 얼굴이 나오는 방식의 수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한 요구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수업이 그 효과가 높다고 느끼기 때문임.
-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교원의 역할 분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적절한 학습내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전면 재구성해야 함. 그리고 재구성된 교육과정 중에서 온라인 콘텐츠 수업으로 구현할 것은 학년 시간표 하에서 동학년 전체가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나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학급 시간표 하에서 교사가 학생들 각자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주거나 학생들 상호 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전담하는 교사와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및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를 구분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 더해 방역을 비롯한 수업 이외의 업무는 과감하게 수업 교사 이외의 직원이나 지역사회와 분담할 필요가 있음.

- 프로젝트형 과제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의 확대는 기존 교사중심, 내용전달 중심의 외현적(explicit)이고 지시적(directed)인 수업을 학생들의 자율성(autonomy)과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조하는 수업으로 전환하는 기회이자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음. 그런 점에서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정보의 탐색과 분석,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적 학습 등 온라인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되는 장점이 있음. 따라서 과제 수행 중심의 수업에서 다루는 지식은 구조화된 지식보다는 비구조화된 지식(암묵적 지식, 맥락적 지식, 상황적 지식)이 적절함. 단순 내용 요약식의 과제보다는 학생들의 삶의 맥락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everyday problems)에 직면하고, 스스로 이해 당사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학생의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을 강조하는 수업이 되어야 함.
- 지역사회와의 협조 체계 구축: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습돌봄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의 협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마을교육공동체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학교 밖 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 연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2학기에는 이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학습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함. 온라인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학습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가정 대신 이들 기관에 모여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등교수업을 하는 날 또한 모든 학생이 학교에 오는 대신에 마을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마을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임.
- 온라인 수업용 인프라 확충: 현재 병행수업이 갖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나 기술 인프라(K-에듀테크 통합 플랫폼 및 학교 무선망 구축,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ITS) 구축,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 개선 등)에 집중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콘텐츠의 양을 늘리고 첨단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곧 수업의 개선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수업용 인프라는 성공적인 수업의 필요조건임. 특히 개별 학습자가 온라인에서 의미 있게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확충이 필요함. 면담에서는 여러 학생들이 화질이 좋지 않은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학생이 의미 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는 없을 것임.

## 참고문헌

- 백병부(2020). 코로나19와 교육: 온라인 학습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2020a). 2020 하반기 초등 블렌디드 러닝 내실화 방안 안내. 미간행유인물.
-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2020b).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등 원격수업 및 교과학습보장 지원 계획 안내. 미간행유인물.

## 부록 ① 교원용 설문지

### I 다음은 선생님의 배경 정보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직 중인 학교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특성화고 제외) ④ 특성화고

2-1. <초등학교> 학급 담임 여부는 어떻게 되시나요?

- ① 담임 ② 교과전담 ③ 기타

2-2. <중, 고등학교, 특성화고> 선생님이 지도하는 교과군은 무엇입니까?

-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④ 사회/역사/윤리 ⑤ 과학 ⑥ 예술(음악/미술)  
⑦ 체육 ⑧ 교양교과군 ⑨ 직업교과군 ⑩ 기타

3. 선생님이 지도하고 계시는 학년은 몇 학년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4.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는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① 읍지역 ② 면지역 ③ 동지역 (대도시) ④ 동지역 (중소도시)

### II 다음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원격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원격수업을 하고 계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 중복응답 포함해서 수업 유형 나오는 대로 전부 다  
① 과제 수행 중심 수업(온라인 과제 제시 및 피드백)  
② 기존 강의 영상 활용 중심 수업  
③ 직접 제작한 영상 활용 중심 수업  
④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2. 선생님께서 주로 하고 계신 원격수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시해본적이 없다 빼고

과제 수행 중심 수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실시해본 적이 없다
1) 학생들이 수업에 끝까지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소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기존 강의 영상 활용 중심 수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실시해본 적이 없다
1) 학생들이 수업에 끝까지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소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직접 제작한 영상 활용 중심 수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실시해본 적이 없다
1) 학생들이 수업에 끝까지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소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실시해본 적이 없다
1) 학생들이 수업에 끝까지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소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원격수업 한 차시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한 시간(영상시청, 과제수행, 피드백 등 포함)은 평균 몇 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40분 이상 ② 약 30~40분 ③ 약 20~30분 ④ 약 10~20분 ⑤ 약 10분 미만 ⑥ 확인하기 어렵다

4. 선생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에 해당하는 것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원격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교과 내용을 충분히 잘 가르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원격수업에서 학생들의 관계 형성과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원격수업에서 학생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원격수업을 하면서 교사들이 협력하려는 분위기가 강화되었다	①	②	③	④
5) 원격수업에 필요한 교사들의 역량이 신장되었다	①	②	③	④

5.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의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골라주세요.

- ① 창의적체험학습 운영 시간 부족
- ② 사회성 및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부족
- ③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증가
- ④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 ⑤ 사교육 증가
- ⑥ 일방적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 증가
- ⑦ 학생들의 불규칙적인 생활
- ⑧ 온라인 예절이나 온라인 범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부족
- ⑨ 장시간 미디어 노출

6.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 세 가지를 골라주세요.

- ① 수업에 활용할 콘텐츠 지원 부족
- ② 원격수업 기술의 한계 및 기자재 지원 미비
- ③ 수업과 연계한 다양한 평가 실시의 어려움
- ④ 학생들의 활동이나 과제에 대한 피드백의 부담
- ⑤ 소극적 참여 학생에 대한 지원
- ⑥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과 회의감
- ⑦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실시에 대한 강요
- ⑧ 다른 학교(학년, 교사) 또는 사교육과 비교하는 분위기
- ⑨ 상담 및 진학지도의 어려움
- ⑩ 학력격차 심화에 따른 학습지원의 어려움

7.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계속해야하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것 입니까?

- ① 교육청주도의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콘텐츠 개발 및 공유
- ② 출결, 평가,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 제시
- ③ 학습관리 및 평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④ 단위 학교에 원격수업 기자재 구축
- ⑤ 학내 무선인터넷망 설치
- ⑥ 원격수업 관련(동영상 제작, 블렌디드수업 등) 연수
- ⑦ 기타( )

**III 다음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재 등교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의 등교수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담당 학급을 기준으로)

- ① 같은 반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와서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다
- ② 같은 반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오지만 여러 교실로 나누어 수업을 받는다
- ③ 같은 반 학생들의 일부만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는다

2. 선생님께서는 등교수업에서 어떤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 ① 원격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 이해도 확인
- ② 원격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 및 보충
- ③ 원격수업 이후의 다음 차시 수업 진행
- ④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 실시
- ⑤ 등교수업 이후 이루어질 원격수업에 대한 안내

3-1. <초등학교> 2020학년도 1학기에 선생님이 담당하는 학급의 교과별 등교수업 시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몇 시간입니까?

(예시) 5학년2반 A학생 기준: 국어 7시간, 수학 7시간, 사회 4시간, 과학 4시간, 음악 1시간 등

교과	0~1시간	2~4시간	5~7시간	8~10시간	11~13시간	14시간 이상
1) 국어	①	②	③	④	⑤	⑥
2) 수학	①	②	③	④	⑤	⑥
3) 사회 (바른생활)	①	②	③	④	⑤	⑥
4) 과학 (슬기로운생활)	①	①	②	③	④	⑥
5) 음악 (즐거운생활)	①	②	③	④	⑤	⑥
6) 미술	①	②	③	④	⑤	⑥
7) 체육	①	②	③	④	⑤	⑥
8) 도덕	①	①	②	③	④	⑥
9) 실과	①	②	③	④	⑤	⑥
10) 영어	①	②	③	④	⑤	⑥
11) 창의적체험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3-1. <중고등학교> 2020학년도 1학기에 선생님이 지도하는 교과의 학생 1인당 등교수업 시수는 몇 시간입니까?

(복수 교과목을 지도하시는 경우에는 평균 등교수업 시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실용 국어 12시간, 독서 8시간인 경우 10시간으로 입력

- 학생 1인당 등교수업시수: ( )시간



3-2. <중고등학교> 등교수업일 중 선생님이 지도하는 학급의 2020학년도 1학기 창의적체험활동 시수는 몇 시간입니까? (담임교사만 작성, 원격수업시수 제외)

- ( )시간

4.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한 등교수업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생들이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2) 학생들이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과 상호작용 한다	①	②	③	④
4) 교사들이 협력하려는 분위기가 강화된다	①	②	③	④
5) 학생들과 관계 형성을 위한 시간을 보낸다(상담 등)	①	②	③	④
6) 학생들이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워한다	①	②	③	④

5.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두 가지를 골라주세요. 기타 포함해서 분석

- ①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간 확보의 어려움
- ② 평가에 필요한 시간의 부족
- ③ 방역지침 준수 등으로 인한 수업 방식의 제한
- ④ 발열체크 등 방역 관련 업무의 부담
- 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
- ⑥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해야 하는 어려움
- ⑦ 기타( )

6. 코로나19로 인해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적용한 등교수업을 계속해야 한다면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과별 최소 성취기준 이수를 위한 등교수업 일수 확보
- ② 방역에 대한 보조 인력 지원
- ③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지원
- ④ 학사일정 운영에 대한 학교 자율권 보장
- ⑤ 기타( )



- ⑥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 ⑦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적다
- ⑧ 시간을 여유 있게 쓸 수 있다
- ⑨ 기타

3.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격수업의 문제점 두 가지를 고르세요

- ①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못한다
- ②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터넷 검색, SNS 등을 자주 한다
- ③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 ④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실력 차이가 더 커진다
- ⑤ 사교육을 더 많이 받게 된다
- ⑥ 설명 중심의 수업이 많아 학습 흥미가 떨어진다
- ⑦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
- ⑧ 수업 이후에 과제(숙제)가 많다
- ⑨ 기타

4.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등교수업의 장점 두 가지를 고르세요.

- ① 배워야 할 학습내용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다
- ② 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③ 실험수업, 활동수업, 협동학습 등을 할 수 있다
- ④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 ⑤ 학교에 다니며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 ⑥ 평가(수행, 지필 등)를 통해 나의 성취 수준을 알 수 있다
- ⑦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 ⑧ 아직 등교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 ⑨ 기타

5.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등교수업의 어려운 점 두 가지를 고르세요.

- ①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못한다
- ② 매일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해야한다
- ③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등교하는 것이 불안하다
- ④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지켜야 할 것이 많다
- ⑤ 등교수업 일정에 맞추어 자녀를 등교시키는 것이 번거롭다
- ⑥ 등교일에 평가(수행, 지필 등)가 집중적으로 시행되어 부담이 크다
- ⑦ 아직 등교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 ⑧ 기타

### 부록 ③ 학생용 설문지

**I** 다음은 여러분의 배경 정보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특성화고 제외) ④ 특성화고

2. 몇 학년에 재학중입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3.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읍지역  
② 면지역  
③ 동지역 (대도시)  
④ 동지역 (중소도시)

**II** 다음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원격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이 요즘 참여하고 있는 원격수업 중에서 가장 많은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온라인으로 과제를 받고 선생님이 도움말(댓글 등)을 주는 수업  
② 선생님이 연결해 준(링크해 준) 교육 자료나 영상을 활용하는 수업  
③ 선생님이 직접 만든 영상을 활용하는 수업  
④ 선생님이 학생들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만나서 하는 수업

## 2. 여러분들이 요즘 참여하고 있는 각각의 원격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라인으로 과제를 받고 선생님이 도움말(댓글 등)을 주는 수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받아본적이 없어서 모른다
1)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했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습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학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의 도움말이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이 연결해 준(링크해 준) 교육 자료나 영상을 활용하는 수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받아본적이 없어서 모른다
1)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했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습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학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의 도움말이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이 직접 만든 영상을 활용하는 수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받아본적이 없어서 모른다
1)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했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습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학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의 도움말이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이 학생들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만나서 하는 수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받아본적이 없어서 모른다
1)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했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습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학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의 도움말이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 3.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 기간 중, 1일 평균 원격수업 학습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0~1 시간	1~2 시간	2~3 시간	3~4 시간	4~5 시간	5시간 이상
1) 원격수업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영상 등을 시청하는 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2) 원격수업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숙제를 하는 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4. 코로나19 상황에서 참여한 원격수업의 장점 두 가지를 고르세요.

- 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학습할 수 있다
- ② 선생님이 온라인에서 개별적으로 도움이 되는 글을 남겨주신다
- ③ 댓글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우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다
- 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 ⑥ 친구 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 ⑦ 시간을 여유 있게 쓸 수 있다
- ⑧ 기타

5. 코로나19 상황에서 참여한 원격수업의 문제점 두 가지를 고르세요.

- ①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못한다
- ②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터넷 검색, SNS 등을 자주 한다
- ③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 ④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실력 차이가 더 커진다
- ⑤ 사교육을 더 많이 받게 된다
- ⑥ 설명 중심의 수업이 많아 학습 흥미가 떨어진다
- ⑦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
- ⑧ 수업 이후에 과제(숙제)가 많다
- ⑨ 기타

## 등교수업 한 달, 학교는 무엇이 달라졌나?

---

- 발 행 일 2020년 8월 27일 인쇄  
2020년 8월 28일 발행
- 발 행 인 이 수 광
- 발행기관 (재) 경기도교육연구원  
(1628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21  
누리집: <http://www.gie.re.kr>  
전 화: (031) 8012-0900  
전 송: (031) 8012-0980
- 등 록 일 2014년 04월 28일
- 등록번호 제374-2014-000034호
- I S B N 979-11-89831-91-2 (93370)
- 인 쇄 Design세창 (T.1544-1466)

# 등교수업 한 달, 학교는 무엇이 달라졌나?

GYEONGGI INSTITUTE OF EDUCATION